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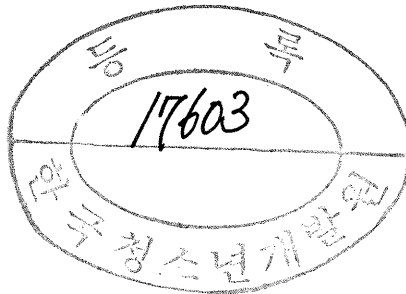
외국인 차별 개선 프로그램

2004. 12

책임연구원 : 박 영 균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강 순 원 (한신대학교 교수)

김 영 지 (한국청소년개발원 부연구위원)



한 국 여 성 개 발 원
한국청소년개발원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개발원이 주관하는 「인문사회연구회 2004년도 협동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회 소관 국책연구기관과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외국인노동자 차별 개선 프로그램은?	1
1. 프로그램의 개요	3
2. 프로그램의 구성	5
II. 교육에서의 외국인 차별	9
1. 외국인 노동자 어린이는 NO!	11
2. 백인은 미국인, 흑인은 아프리카인?	18
III. 고용에서의 외국인 차별	27
3. 때리지 마세요	29
4. 미국시민권은 하늘나라 티켓?	42
IV. 복지에 있어서 외국인 차별	51
5. 순심씨의 사랑과 아픔	53
6.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	61
7. 우리를 돕는 한국 친구들	69
V. 외국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	77
8. 우리 모슬렘은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79
9. 살색???	95
참고자료 / 외국인 노동자 관련교육자료	97
참고문헌	101

I . 외국인노동자 차별 개선 프로그램은?

1. 프로그램의 개요
2. 프로그램의 구성

1. 프로그램의 개요

‘청소년을 위한 외국인노동자 차별 개선프로그램’은 세계화의 결과 그동안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단일문화권에 익숙했던 우리문화에 다문화적 충격이 가해지면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우리 주변의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반만년 이상 단일민족, 단일문화를 지켜온 우리민족으로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아주 뿌리깊은 것이다. 물론 이것은 백인중심의 서구사회에 대한 열등감의 또 다른 반영으로서 우리 보다 못하다고 간주되는 아시아 주변국 사람들에게 대한 멸시와 편견 그리고 냉대를 의미한다. 외국인(이주) 노동자문제는 1990년대 이후 아시아 주변국가에서의 젊은이들이 이주노동자로서 한국사회에 대거 진입하면서 불거진 사회적 현상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고, 지구촌시대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가치를 배우면서 평화와 인권적 삶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이 세계시민으로서 건강한 자기애를 가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 본 차별개선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21세기에 들어와 세계는 보다 더 가까워졌다.(인터넷과 발달된 교통수단을 통해 대부분의 지역이 일일권에 편제되었으며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어떠한 형태의 차별에 대해서도 이는 인류의 이상에 어긋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1965년 유엔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통해 이러한 인류의 이상을 천명하였고 우리나라도 이를 비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세계에서 지탄을 받는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일상생활에서부터 교육, 복지, 고용, 문화 등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직·간접적 차별은 이들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침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그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여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차별은 차별당하는 사람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형태의 차별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가해자가 되게 하기도 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자가 되도록 만든다. 따라서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는 차별을 용인하지 않고 이러한 차별을 부정하고 편견을 갖지 않게 하는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 차별개선 교육은 학교 안팎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경제개발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지 못했으나 사회적 민주화의 결과 한국노동운동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히 성장하였다. 1990년대 이후 급성장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진입, 그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기본적 권리침해 등이 사회문제화가 되면서 이러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외국인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하게 하자는 노력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돕고, 그들의 사회적 적응과 실제 생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행위들을 인식하고 새롭게 각성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두었다.

외국인차별 개선활동을 주제로 한 기존의 기초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이 담아내야 할 내용이 기초적인 주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에서부터 이들의 차별행위에 대한 각성에 이르기까지 다루는 범주가 포괄적이다. 이러한 제한점으로 인해 하나의 영역별로 충분한 활동내용과 자료가 제시하기에는 지면의 한계가 크다. 흥미중심보다는 주제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다.

2. 프로그램의 구성

‘청소년을 위한 외국인노동자 차별 개선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나 사회적 차별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들을 직접 인식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실연하게 함으로써 반차별정신과 평화, 인권의식, 다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비판적 사회적 인식 활동이다. 이 차별개선 프로그램은 교육에 있어서의 외국인 차별, 고용에 있어서의 외국인 차별, 복지에 있어서의 외국인 차별 그리고 문화적 차별 등 총 4개의 활동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영역별로 2~3개의 단위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교육에 있어서의 외국인 차별’은 인종차별철폐협약에 어떠한 형태의 비국적 어린이에 대한 교육적 제한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은 한국국적을 소지한 어린이로 제한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 자제들의 기초교육이 제한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발과 함께 우리 교과서 삽화나 이야기 속에 백인과 흑인에 대한 민족적 편견을 그리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교육에서의 인종차별을 인식하게 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 ‘고용에서의 외국인 차별’은 외국인노동자들이 가장 심하게 겪는 고용에서의 차별과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활동이다. ‘외국인노동자 고용’이란 여러 형태를 통해 한국인 기업에 외국인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때 임금, 근로조건, 산업재해보험 등에 있어서 비인간적 차별을 당하고 있다. 한국이 잘 살고 고용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이주를 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불리한 조건에 예속시켜 놓고 값싸게 고용할 수 있는 길을 합법적으로 한국 기업주들에게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들이 하소연을 하여도 구제의 한계가 있다. 특히 고용에서의 심한 욕설과 구타 산재 등으로 인해 이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

을 바꿔보면 우리도 미국이나 일본 등 우리보다 잘사는 외국에 나가면 차별받는 유색인 노동자라는 인식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복지에 있어서 외국인 차별’은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국적 취득의 문제, 산재의 문제, 탁아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봄으로써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얼마나 배타적인지를 인식하게 하여 이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복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복지란 삶의 차원을 인간답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본적 생계를 불편 없이 꾸려가도록 돕는 사회적 지원기제이다. 국가가 이를 다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사회적 자선 기관들이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것도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인식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나눔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문화적 차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편견과 다문화적 감수성의 결여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한국교육이 서구문화에 편도된 교육을 한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미국이나 유럽은 비교적 잘 아는데 아시아 주변국에 대해선 거의 모르고 있다. 또한 이슬람에 대한 인지도도 매우 낮고 최근에는 이슬람을 테러리즘과 무조건 연결시키고 있다. 피부색에 대한 편견과 음식 등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문화도 그러한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통해 이들의 다문화적 감수성을 기르고자 한다.

외국인 노동자 차별개선 프로그램 구성

활동영역	단위활동	활 동 내 용
I. 교육에서 의 차별	1. 외국인 노동자 어린이는 NO!	학령기 아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외국인노동자 어린이의 현실을 이해하게 한다.
	2. 백인은 미국인, 흑인은 아프리카인?	거리에서 코가 높은 백인을 보면 무조건 미국사람으로 인식하고 흑인을 보면 아프리카인인줄 알고 멀리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II. 고용에서 의 차별	3. 때리지 마세요!!!	외국인 고용상황을 고발하는 사진 중 제일 빈도가 높은 것이 구타로 인한 인권침해이다.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킨다.
	4. 미국시민권은 하늘나라 티켓?	오늘날 문제가 되는 이중국적, 원정출산 등을 통해 한국 사람이 가진 미국시민권에 대한 꿈을 고발하며 미국에서의 한인차별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III. 복지에 있어서 차별	5. 순심씨의 사랑과 아픔	외국인노동자와 결혼하여 자녀를 둔 한국여성 순심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들의 기본적 권리에 대해 논의한다.
	6.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	어린이집이나 무료위탁시설 등도 외국인노동자자녀에 대해선 개방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이해하며 대안을 생각한다.
	7. 우리를 돕는 한국 친구들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과 생명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 시민단체를 찾아보고 예방하여 우리가 할 일에 대해 함께 생각한다.
IV. 문화적 차별	8. 우리 모슬렘은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9.11이후 기독교의 문으로 본 이슬람 그리고 이라크전쟁을 통해 본 이슬람과 테러와의 연계 등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한다.
	9. 살색!!!	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살색표기 금지를 이해하고 이를 외국인노동자의 관점에서 각자 살색을 나태내보이도록 하여 다양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II. 교육에서의 외국인 차별

1. 외국인 노동자 어린이는 NO!
2. 백인은 미국인, 흑인은 아프리카인?

1. 외국인 노동자 어린이는 NO!

개요

□ 활동목표

- 인종차별철폐협약에서의 인종차별철폐정신을 이해한다.
-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이 비국적 외국인노동자 어린이에 대한 학교입학을 허용하지 않음을 인식하게 한다.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 어린이들의 구체적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도출한다.

□ 활동요약

- 인터넷을 통한 국제규약과 교육기본법 찾기
- 외국인노동자 어린이들 초청하여 만나보기

□ 진행개요

- 지 도 자 : 전체 진행자 1명(전체진행)
- 참가인원 : 30명 내외 (6~7명 내외의 모둠 구성)
- 장 소 : 실내
- 소요시간 : 2시간 내외
- 준 비 물 : 인터넷, 메모지, 전지, 매직펜, 카메라, 간식

□ 유의사항

- 청소년들의 활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흥미를 갖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한다.
- 시사문제에 흥미를 갖지 않는 청소년들이 외국인차별 문제에 대한 인

식할 수 있도록 사전에 분위기를 조성한다.

- 청소년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느낌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열린 분위기를 조성한다.
- 외국인노동자 어린이가 와서 위화감을 갖지 않도록 참가 청소년들의 말투나 태도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한다.
- 청소년들이 토론한 대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지 지도자는 관여하지 말고 단지 그들이 내린 각각의 결론을 공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활동내용

활동 1 : 인터넷 탐색

- ▶ 주요내용 :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규약을 찾아보게 하여 국제적 보편성과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차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 ▶ 소요시간 : 40분

- ▶ 준 비 물 : 인터넷, 조별토의가 가능한 자리 배치, 메모지, 전지

- ▶ 진행과정

- 청소년들이 사회적 차별이 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가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자는 처음에 분위기를 잘 조성한다.
-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주제를 참여와 자발성을 끌어내어 진지하게 이끌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조절한다.
- 인종차별국제협약 정신에 나타난 인종차별교육정신이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고 이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토론을 자유롭게 하도록 한다.
- 모둠별로 논의된 내용을 전지에 정리하여 벽에 붙인다.

응용활동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참가자 중 외국체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차별 혹은 반차별 경험을 발표하도록 한다.
- 인종차별철폐협약 뿐만 아니라 난민 및 이주노동자 관련 협약도 찾아보도록 한다.

활동 2 : 너와 나! 우리는 한팀! 함께 고민해보자!

- ▶ 주요내용 : 국제협약과 법 사이의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어린이들이 갖는 학교가고 싶은 마음과 갈 수 없는 현실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본다.
- ▶ 소요시간 : 1시간~1시간 20분
- ▶ 준 비 물 : 외국인노동자 어린이들(가능하면 학생들과 동일 인원수), 카메라, 녹음기, 음료수, 전지, 매직
- ▶ 진행과정
 - 어린이들에게 우호적인 안내를 한다.
 - 어린이 가족이나 친구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사진이나 그림 자료를 이용하여 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 서툴 수 있는 한국말에 대해 도우미를 요청할 수 있으면 요청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청소년들이 이에 대한 관용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 청소년들이 관심과 흥미를 갖고 우호적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이들이 함께 서로 이해하며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 대화가 끝난 후 사진도 함께 찍고 문화교류도 할 수 있도록 자유시간을 허용한다.
 - 우리 학생들과 외국인 노동자 어린이들이 함께 모둠별로 모여 우리가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든다.
 - 토의가 끝난 후 결과를 전지에 써서 벽에 붙이고 이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선택하여 모두가 이를 실행하도록 합의한다.

☞ 응용활동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것보다 문제에 대한 공감의 더욱 중요하므로 들어주기를 잘하고 이를 자기문제화하는 연습을 하도록 한다.
- 구체적인 예시가 도출되면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한다.

도움자료

□ 자료 1.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채택일 1966. 3. 7 / 발효일 1969. 1. 4 / 당사국 수 156 /

대한민국 적용일 1979. 1. 4 단, 제14조 선언은 1997. 3. 5

○ 본 협약의 체결국은, 국제연합 헌장이 모든 인간에게 고유한 존엄과 평등의 원칙에 기본을 두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이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의 구별 없이 만인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시키고 촉진하는 국제연합의 목적 중의 하나를 성취하는데 있어서 국제연합과의 협조 아래 공동적 및 개별적 조치를 취하기로 서약하였음을 고려하고, 세계인권선언이 만인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함을 선언하고 또한 특히 인종, 피부색 또는 출생지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하지 않고 동 선언에 언급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구나 향유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떠한 차별의 고무에 대해서도 법의 균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이 어떠한 형태로든 또한 어디에 그들이 존재하든 식민주의와 그리고 그와 결탁한 차별의 모든 관행을 규탄하고 1960년 12월 14일자 식민지 및 그 인민에 대한 독립 부여 선언(총회결의 1514(XV))이 그들을 신속히 무조건 종식시켜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또한 엄숙히 선언하였음을 고려하고, 1963년 11월 20일자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연합 선언(총회결의 1904(XVIII))이 전 세계에서 모든 형태와 양상의 인종차별을 신속히 철폐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확보할 필요성을 엄숙히 확인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인종차별에 근거한 어떠한 우수 인종 학설도 과학적으로 허위이며 도덕적으로 규탄받아야 하며 사회적으로 부당하고 위험하며 또한 어느 곳에서든 이론상으로나 실제상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정당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인종, 피부색 또는 종족의 기원을 근거로 한 인간의 차별은 국가간의 우호적이고 평화적인 관계에 대한 장애물이며 국민간의 평화와 안전을 그리고 심지어 동일한 단일 국가 내에서 나란히 살고 있는 인간들의 조화마저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

하고, 인종적 장벽의 존재가 어떠한 인류사회의 이상과도 배치됨을 확신하고, 세계 일부 지역에서 아직도 실증적인 인종차별의 시현과 또한 인종적 우월성 또는 증오감에 근거를 둔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 인종분리 또는 격리와 같은 정부 정책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모든 형태와 양상에 있어 인종차별을 신속히 철폐시키기 위한 모든 필요 조치를 채택하고, 인종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종주의자의 이론과 실재를 방지하고 격퇴시키며 모든 형태의 인종분리 및 인종차별이 없는 국제공동사회를 건설할 것을 결의하고, 1958년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에 관한 협약과 1960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채택한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금지협약에 유의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연합 선언에 포용된 제반 원칙을 실행할 것과 이 목적을 위한 실제적 조치의 최단시일 내 채택을 확보하기 위해 합의하였다.

□ 자료 2. 교육기본법(1997.12.13 법률 제5437호)

☞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37호로 제정되었다. 전문 3장 2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종전의 교육법은 폐지되었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국가 발전과 인류공영 이상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의 자주성·중립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의무교육은 초등교육 6년 및 중등교육 3년으로 하여 중등교육은 재정여건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영재교육·유아교육·직업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야후 백과사전 참고

2. 백인은 미국인, 흑인은 아프리카인?

개 요

☐ 활동목표

- 청소년들의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선입견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게 한다.
- 미국사람은 다 백인이고 아프리카인은 다 흑인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게 한다. 다인종국가의 모습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여 유색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지우도록 한다.

☐ 활동요약

- 지도로 본 인종분포 그리기
- 미국사람, 아프리카사람 역할 놀이

☐ 진행개요

- 지도자 : 전체 진행자 2명(전체진행)
- 참가인원 : 20명(두 집단 구성)
- 장 소 : 실내 혹은 날씨가 좋으면 야외
- 소요시간 : 1시간
- 준비물 : 세계지도, 색연필, 페이스페인팅

☐ 유의사항

- 청소년들의 활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처음에 인종게임을 유도한다.
- 두 명의 지도자가 각각 흑인과 백인으로 분장하고 청소년의 특성과 흥미를 잘 이해하여 활동을 이끈다.

- 청소년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느낌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열린 분위기를 조성한다.
- 페이스페인팅을 통해 백인과 흑인 그리고 황인으로 분장한 자신이 어떻게 분류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지를 역할극을 통해 인종차별을 체험하도록 한다.

활동내용

활동 1 : 인종지도 맞추기

- ▶ 주요내용 : 세계지도를 놓고 국가별로 인종 분포도를 그리도록 하면서 다양한 인종이름을 맞추도록 한다.
- ▶ 소요시간 : 20분 내외
- ▶ 준비물 : 다양한 인종이름을 알아오기, 세계지도 두 장, 색연필
- ▶ 진행과정
 - 두 명의 지도자는 각각 백인과 흑인으로 분장하고 이미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청소년들의 흥미를 이끄는 시도를 한다.
 - 세계지도를 놓고 백인국가, 흑인국가, 그리고 유색인국가로 표시하도록 한다.
 - 지도에 나타난 인종별 국가가 정말 단일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피게 하며 이때 인종이름 맞추기를 한다.
예시 : 노르만족, 앵글로색슨족, 아보리진, 마오리족, 한족 등
 - 그들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가를 보면서 색깔을 더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세계지도를 인종모자이크로 재구성하도록 한다. 이것이 세계라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유의사항

- 지도강사가 청소년들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청소년들이 인종이름을 잘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간다.
- 가상의 이름도 허용하게 하여 영화 속의 주인공 같은 인종도 허용하게 한다.
예 : 울부린너, 부시족 등

활동 2 : 나는 백인, 너는 흑인

- ▶ 주요내용 : 자신의 얼굴에 페이스페인팅 물감으로 칠하여 백인 미국인으로서 그리고 흑인 아프리카인으로서 한국에 여행왔다고 가정하여 역할극을 한다. 그러한 역할극을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편견을 고발한다.
- ▶ 소요시간 : 30~40분
- ▶ 준 비 물 : 페이스페인팅 재료
- ▶ 진행과정
 - 1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 역할극을 하도록 준비시킨다.
 - 흑인을 하고 싶은 사람은 까만 페이스페인팅을, 백인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하얀 페이스페인팅을 한다.
 - 여러 명이 페이스페인팅을 해도 되지만 페이스페인팅을 안한 사람들은 모두 한국인들이다. 이들이 모인 공간을 자연스럽게 설정하여 일반 한국인들이 흑인과 백인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준비한다.
 - 대부분의 경우 백인에게는 무조건 Hello하고 접근하고 흑인에게는 접근을 피한다. 버스 안이라고 상정하면 백인 옆에는 스스럼없이 앉으나 흑인 옆에는 자리라 나도 앉지 않으려고 한다.
 - 백인이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하면 매우 놀라고 흑인이 미국에서 산다고 하면 또한 놀란다.
 - 백인통치를 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있고 미국의 일부 주의 경우엔 흑인 인구수가 더 많다. 이러한 다인종, 다문화국가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인식을 넓히도록 노력한다.

응용활동

- ‘백인은 미국인, 흑인은 아프리카인?’은 교과서 분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교과서 삽화를 분석한다던가 아니면 세계문화를 중심으로 인종

분포도를 나누다거나 하는 등 우리의 인종적 선입견을 교정할 수 있는
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페이스페인팅은 어린이들이 좋아하지만
청소년들도 아주 좋아한다.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된다.

도움자료

□ 자료 1. 먼나라 이웃나라



“조선 후기 김정호는 수천 번에 걸친 국토답사를 통해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만들었다. 그가 만든 지도가 우리 국토를 무수히 발로 훑어 기록한 한국의 랜드맵(Landmap)이라면, 이 책은 해외여행과 외국과의 접촉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눈엔 잘 보이지 않는 한국인의 의식과 사고방식을 나름대로 정리한 한국인의 마인드맵(Mindmap)이라고 나름대로의 작업에 가치를 부여하고 싶다.”
-작가의 말 중에서

<먼나라이웃나라표지>

*출처 : <http://www.won-bok.com> 작가 홈페이지

□ 자료 2. 우리나라에서의 인종차별

▶ 질문: 우리나라는 인종차별이 심한 편인가요?

▶ 인종차별 좀 있는 듯

우선 저 자신부터 봐도 그렇습니다. 피부가 까만 외국인이 지나가면 웬지 피하게 되고 좀 없어 보이고 그렇죠...

하지만 피부가 백색인 외국인이 지나가면 멋져 보이고 암튼 그렇죠...

아무래도 초등교육 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태어난 이후로 피부가 꺼민 사람은 무시하는 의식이 머리에 박힌 듯합니다.

보통 다들 까맹이 라고 하면서 무시하잖아요...

말레이시아나 그런 나라에서 오는 외국인 노동자 무시하는 걸 봐서도 알 수 있구요...

▶ 인종차별①

차별할 인종이 있나요? 그냥 한 인종 밖에 안사는데 근데 혼혈아나 동남아 사람들 그리고 흑인 등은 많이 무시하죠. 특히 못사는 나라 사람들 심하지 않나?

▶ 인종차별②

외국사람과 결혼하는것도 곱게 안 보고.. 백인이라면 좋아하고 얼굴 까마면 일 죽도록 해줘도 월급도 안주고.

그다지 심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유색인종이 많이 사는게 아니니까요 ;;

살아봤자 중국인,일본인, 뭐 이정도니까 ;;말이죠..

근데 요즘 반미 감정은 높아지고있는 추세니까 ,,,

백인들은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

미국인들처럼 이유 없이 다른인종 총으로 쏘 죽이고 그러진 않으니까 요;;가벼운 편이죠 .

▶ 아주 심한 편입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민족이라고 하죠..

동남아나 중국등지에서 온 노동자들을 짐승취급하면서

벽안의 서양 외국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이려고 하는 민족입니다..

물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티비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정말 정도가 지나치더군요...사람은 모두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텐데요...

▶ 심하긴 합니다만.

동남아시아 쪽 사람들에게엔 인종차별이 좀 있다고는 합니다만...

미국이나 유럽 쪽의 사람들보단...인종차별이라고도 할 수 없죠..

우리나라 언론들이 좀 심하게 말을 하긴 하지만 미국은 백인들 빼고는 모든

유색인종을 차별합니다.

우리나라는 동남아 계통 사람들에게만 좀 심하지만 따른 서양 나라들에 비해서는 별로 그리 심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 가벼운 편은 아니지요.

보수적이고 정통성을 부르짖는 민족일수록 인종과 다른 민족에 대해 배타적입니다. 특히나 우리민족은 우리나라에 사는 유색인종이나 소수민족에 대해 상당히 엄격합니다.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봐도 심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심한편..

솔직히 이야기하여 우리나라는 심한편입니다.

외국 사람과 결혼을 하여도 좋은 눈으로는 못 봅니다.

또한 요즘뉴스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폭행 외국인 부녀자 폭행 등의 많은 폭행사건들과 인종차별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꽤 심한 편에 들어갑니다.

□ 자료 3. 주요 인종의 민족 분포

① 아시아 인종

+ - 북방계 : 터키족, 마자르족, 몽고족, 일본족, 한민족, 사모예드족, 라프족 등

+ - 남방계 : 한족, 티벳족, 타이족 등

② 유럽 인종

+ - 서방계 : 튜턴족, 라틴족, 슬라브족

+ - 동방계 : 이란족

+ - 남방계 : 셈족(아랍족), 햄족(베르베르족)

+ - 기 타 : 그리스인, 켈트족

③ 아프리카 인종

- + - 중·동부 아프리카 : 수단 니그로
- + - 중부 아프리카 : 피그미족
- + - 동부 아프리카 : 반투 니그로
- + - 남부 아프리카 : 부시맨, 호텐토트

- ④ 소수 민족 : 뉴기니의 파푸아족,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오스트레일리아의 어보리진, 마다가스카르섬의 호바족, 콩고강 유역의 피그미족, 피레네 산맥의 바스크족, 아일랜드의 켈트족, 핀란드의 라프족, 아메리카 인디언 등

*출처 : Naver지식검색 지식Q&A >건강, 의학>건강, 인체상식

Ⅲ. 고응에서의 외국인 차별

3. 때리지 마세요

4. 미국시민권은 하늘나라 티켓?

3. 때리지 마세요

개 요

□ 활동목표

-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업현장에서의 임금체불, 잦은 해임, 구타 등 차별 행위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권의식을 제고한다.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고용실태가 비인간적임을 인식하게 하여 이를 개선하는 반폭력 인권운동에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이를 위해 반폭력 게임을 실시한다.

□ 활동요약

-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를 현장 방문한다.
- 외국인노동자 고용 업체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를 알아보고 특히 사진에 나와 있는 물리적 인권침해를 보면서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한다.
- 청소년들이 공을 갖고 어떤 특정인을 우리와 좀 다르다는 이유로 집중적으로 차별하고 폭력을 가하게 하는 게임을 통해 폭력의 위해성을 인식하게 한다.

□ 진행개요

- 지 도 자 : 전체 진행자 1명
- 참가인원 : 10명
- 장 소 : 안산 청소년단체, 학교
- 소요시간 : 3시간
- 준 비 물 : 차비 및 간단한 선물

□ 유의사항

- 바쁜 청소년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대를 상의하여 일정을 잡는다.
- 기관과 미리 충분히 상의하여 서로의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이 맞으면 외국인노동자와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한다.
- 청소년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느낌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열린 분위기를 조성한다.
- 현장방문활동이 교육적 목적임을 상호 인지하여 지나친 정치적 표현은 자제시키고 인식을 확대하고 상호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모은다.
- 반폭력 게임 시 지나친 감정이입이 되지 않도록 지도자가 유의한다.

활동내용

활동 1 :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현장방문

- ▶ 주요내용 :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현지생활적응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등에 계시는 선생님께서부터 우리나라 외국인노동자의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듣고 시청각자료를 이용하여 이들의 문제를 깊이 인식하여 이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권침해임을 인식하도록 한다.
- ▶ 소요시간 : 2시간
- ▶ 준비물 : 문서로 된 보조자료, 메모지나 공책, 필기도구, 토론용 비디오테이프, 전시물 등
- ▶ 진행과정
 - 청소년들이 각자 안산에 일정한 시간에 모이도록 미리 연락한다. 연락 과정에서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의 홈페이지(www.migrant.or.kr/)를 알려주어 사전 인지를 하게 하도록 한다.
 - 모두 모이면 안내를 받아 외국인노동자센터로 이동하여 준비한 공간에서 담당 선생님과 모임을 갖는다.
 - 활동자료를 이용하여 시각적 이해를 돕도록 하고 기관소개보다는 이주노동자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며 궁금증을 풀게 한다.
 - VTR이나 슬라이드 등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활동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 기간에서 출간한 각종 사료와 사진 등을 보며 외국인노동자들의 심각한 인권침해상황이 고용현장에서 어떻게 자행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하며 자연스럽게 기관시설을 돌아본다.

응용활동

-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받도록 한다.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활동도 이해하도록 돕는다.

활동 2 : 반폭력 게임(어디 한번 때려봐?!)

- ▶ 주요내용 : 청소년놀이를 통해 폭력이 주는 불쾌한 경우를 경험하게 하여 이러한 부정적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한다.
- ▶ 소요시간 : 30분
- ▶ 준 비 물 : 탕탱볼
- ▶ 진행과정
 - 열 명이 둥글게 모여 공놀이를 한다. 처음엔 우호적으로 공놀이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어떤 특정인을 집중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한다.
 - 공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서 미처 이를 피할 수 없게 되고 차츰 공격적으로 분위기가 바뀐다.
 - 가끔 공이 머리에 맞기도 하고 어떤 몸 부위를 자극하면서 급기야 통제력을 상실한다.
 - 당한 아이는 명문도 모른 채 맞게 되고 다른 청소년들이 더욱 신나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 20분 정도 게임을 한 후 서로가 느끼는 감정을 나누며 특히 집중적인 공격대상이 된 청소년으로부터 공포감과 폭력이 가져오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이런 과정을 통해 폭력의 문제점과 평화적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도록 한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폭력의 사회적 결과에 대해 토론한다.

응용활동

- 반폭력 게임은 독일 평화교육 모임에서 자주 활용하는 방법이다. 최근 청소년들의 폭력화를 염려하며 이에 대한 간접경험을 통해 비폭력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 사회에서도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다.
- 특히 외국인노동자들의 고용환경에서의 구타 및 인권침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의 반폭력 문화를 신장하기 위한 준비교육으로서 반폭력 게임은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도움자료

□ 자료 1.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안)

▶ 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제정(2003.8.16., 법률 제6967호)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관리를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인력부족확인서 및 고용허가서 발급절차, 외국인 취업교육에 관한 사항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요건 충족을 위한 사용자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1월 이상으로 정함.
- 직업안전기관의 장은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를 추천할 경우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조건을 갖춘 적격자를 5배수이상 추천하도록 함.
- 외국인 취업교육은 20시간 이상으로 하고, 교육내용에는 취업활동에 필요한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관한 사항,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 직업안전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가 기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규모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함.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국제노동재단,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전국적 규모를 갖춘 사용자 단체 중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 에게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고, 그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에게 승인을 얻도록 함.

*출처 : 노동부 공고

□ 자료 2. 한국이주 노동자인권센터(www.migrant114.org/)자료실

☞ 각종 문서자료 및 사진, 동영상자료를 활용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홈페이지]

□ 자료 3. 국가인권위원회(www.humanrights.go.kr)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 자료 3. 외국인 노동자의 폭행 사례

사례 1

일 시 : 2000년 3월26일 1시

피해자 : 샤무엘(SAMUFL R.BALANGTAD), 29세 남자.

아우크스티노(PAPIOS AUSTINO PING A), 남자 38세

사건 접수처리 : 구미가톨릭근로자센터

<사건 개요>

99년 6월 입국한 필리핀인 샤무엘(29세, 남성)과 아우크스티노(38세 남자)는 대구에 있는 ○○섬유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일하고 있었다. 위 두 사람은 사건발생일인 2000년 3월 26일 01시경 야간 근무를 하던 중 한국인 주임 ○○○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당시 ○○○은 새벽 1시경에 현장조장 ○○○이 필리핀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한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가서 샤무엘과 아우크스티노 등 2명의 연수생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였다. 주먹으로 안면과 전신을 구타한 것은 물론 옆에 있던 필라스틱 파이프를 들고 다시 여러 차례 폭행을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가해자 ○○○은 2주전 필리핀 연수생의 이탈로 감정이 악화되어 있어 샤무엘과 아우크스티노 등이 서로 이탈을 논의한 것으로 생각하여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례 2

사건발생일시 : 3월 27일 오후 2시

피해자 : 프리마 사안트(PREMA SHANTIA)

남자, 33세, 1997년 7월 입국

국적 : 스리랑카

연수업체 : ○○산업

가해자 : ○○○(현장근로자)

사건접수처리 : 구미가톨릭근로자센터

<사건개요>

97년 7월에 입국한 스리랑카인 프리마 사안트는 ○○섬유에서 연수생으로 일하고 있었다. 하루는 프리마가 친구에게 빌려온 성인비디오 테잎을 누가 가져갔느냐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여 서로 언쟁이 오갔다. 그러던 중 프리마가 성인비디오를 본다고 한국인 노동자 ○○○가 비난을 하자 언쟁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러던 과정에서 ○○○가 주먹으로 프리마를 폭행하여 눈 윗부분이 찢어져 봉합수술까지 하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사례 3

사건발생일시 : 4월 24일 오전 10시

피해자 성명 : 윌슨(WILSON ESCANDOR DIZON)

남성 25세, 1999년 6월 30일 입국

국적 : 필리핀

연수업체 : ○○플라스틱(대표 ○○○)

가해자 : ○○○ 차장(41세)

사후관리업체 : ○○개발

사건접수처리 : 구미가톨릭근로자센터

<사건개요>

필리핀 인 윌슨은 1999년 6월에 입국하여 ○○플라스틱에서 연수생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사출회사로서 15명의 필리핀인과 인도네시아인 1명이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윌슨은 컴퓨터, TV케이스를 포장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4월 24일 사건 당일에도 혼자서 포장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 차장이 다가와서 작은 포장지로 포장을 다시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윌슨이 혼자서 작은 포장지로 포장을 하면 불량이 나고, 콘베어라인에 물건이 쏟아져 못한다고 대답하자, 화가 난 ○○○ 차장이 윌슨의 목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면을 구타하였습니다.

○○○ 차장에 의해 목이 졸린 윌슨이 놓으라고 손을 뿌리치자 옆에 있던 한국인 ○○○이 오른팔을 잡고 위로 젖혔다. 그리고 또다시 폭행을 시작하려던 ○○○을 필리핀인 로머의 저지로 중단되고 윌슨은 안면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평소에도 ○○○ 차장은 15명의 필리핀인들에게 뒤통수를 구타, 발길질을 하였으며, 심한 욕설은 일상적으로 퍼부었다고 하며, 물건을 집어서 던지고 부수고 하며, 공포감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사례 4

피해자 : 코심(인도네시아)

가해자 : 미상

연수업체 : ○○섬유

사건접수처리 :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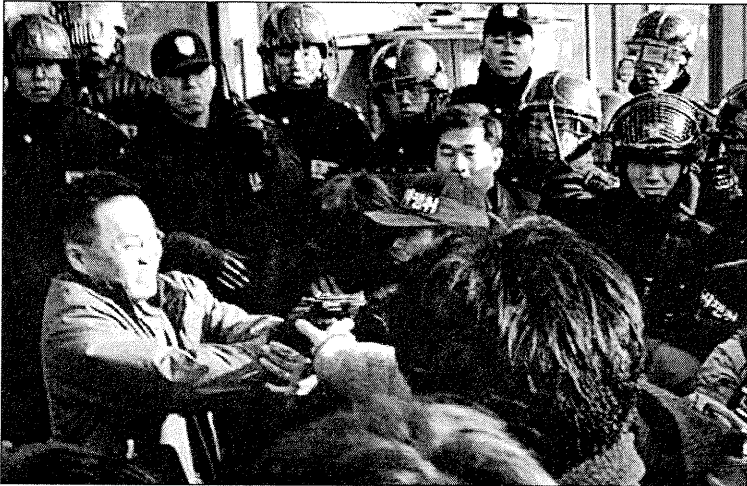
<사건개요>

인도네시아인 코심씨는 99년 7월 14일 연수생으로 입국하였다가 그해 12월 연수업체를 이탈하여 대구에 있는 ○○섬유에서 일하게 되었다. 약 1개월 정도 일하던 중인, 2000년 1월 22일 야간작업을 하던 새벽 1시경 감기몸살로 일을 하기 어려우니 기숙사에서 쉬고 싶다고 한국인 직원에게 부탁했으나 한국 직원은 일하기 싫으면 그만 두라고 소리치며 화를 내다가 코심씨를 발로 3회 폭행 하는 과정에서 코뼈가 부러졌다. 그 후 기숙사에서 잠시 잠을 잔 후 아침 10시경 보고를 받은 사장이 코심씨를 데리고 근처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하고 난 후 휴식을 원했으나 사장과 가해 직원이 계속해서 일을 할 것을 요구하여 작업장을 이탈 상담소로 오게 되었다.

*출처: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 자료실에서

□ 자료 4. 가스총 쏘고, 성직자 폭행하고, 강제추방...

[속보, 사회] 2004년 04월 02일 (금) 12:12



▲ 지난 1월 7일 오후, 서울 동빙고동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집회를 끝내고 돌아가는 명동성당농성투쟁단을 출입국 단속반원이 가스총을 쏘고 있다.

[오마이뉴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 심각한 인권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국제적 비난도 예상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면서 가스총을 사용해 비난을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그물 총 사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성직자를 폭행하고 이주노동자 지도자를 강제추방 해 국제적 논란이 일 조짐이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저지와 전면 합법화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투쟁단(이하 농성투쟁단)' 공동대표 샤말타파(32·네팔)씨를 강제 출국시켰다.

법무부는 샤말타파씨를 1일 새벽 2시께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인천공항으로 긴급 후송한 뒤 오전 9시 홍콩 행 비행기로 강제 추방시켰으며 홍콩에서 다시 네팔 행 비행기를 태울 예정이다.

샤말타파씨는 지난 2월 15일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에 의해 강제 연행돼 여수출입국관리소로 이송된 뒤 여수출입국관리소에서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저지와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며 31일간 단식투쟁을 전개하다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법무부는 기습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샤말타파씨를 연행해 강제 출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여·34·샤말구명여수대책위 간사)씨는 1일 "샤말타파씨가 오전 7시 40분께 인천공항이라며 전화를 걸어왔다. 새벽 2시께 갑자기 깨워 데리고 갔으며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도 함구했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일 "비행기 시간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새벽에 깨워 데리고 왔으며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샤말타파씨를 강제 추방시킨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인권단체 및 이주노동자단체들은 비인도적인 법 집행이라며 2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법무부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농성투쟁단 교육선전팀장 ○○○(여·27)씨는 "지난 2월 17일 이주노동자 9명이(여수보호소 1명, 화성 외국인보호소 4명, 명동성당 농성단 4명) 강제추방 중단 및 연행 이주노동자 석방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며 "이어 화성보호소에서 단식농성에 가세한 이주노동자가 17명으로 늘어나자 이중 6명을 독방에 가두었다"고 밝혔다.

강씨는 또한 "법무부는 지난달 3·4일 이틀동안 단식에 참여한 11명의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출국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하혈 증세를 보인 몽골 이주노동자와 여권이 없는 또 다른 몽골 이주노동자를 불법적으로 강제 추방시켰다"고 거듭 밝혔다.

평등노조이주노동자지부 선전국장 ○○○(여·31)씨도 같은 날 "'샤말타파'를 비롯해 '깨비' '굽따' '헝' 등 4명에 대해 지난달 8일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을 했다"며 "이들은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부에 진정을 해놓은 상황이며 단식농성으로 건강이 악화돼 풀어줄 것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요청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 가스충→성직자폭행→그물충→강제출국, 거꾸로 돌아가는 법무부 인권시계

경기장 난동꾼이나 은행 강도를 체포할 때 쓰는 그물 충을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단속에 쓸 계획을 세웠던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에 대한 비

난 여론이 거세게 일자 사용계획을 철회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말께 보안장비 판매업체인 K사로부터 그물 총 4대를 납품 받아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체포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물을 발사해 사람을 체포할 수 있도록 만든 이 장비는 짐승을 포획할 때 쓰는 그물망을 연상케 해 비난여론을 샀다.

법무부는 1일 보도 자료에서 "불법체류외국인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나 일부 극렬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무장하지 않은 단속원을 폭행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불법체류외국인을 효과적으로 검거하고자 그물 총 4개를 방어용 시험장비로 구입한 바 있다, 하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그물 총 사용을 일체 하지 않도록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1일 성명서에서 "법무부는 샤말타파씨에 대한 강제 출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강제단속과 추방을 즉각 중단하며, 불법체류자의 전원사면과 체류합법화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추방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반인권적 발상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도 1일 성명서에서 "강제추방 합동단속기간 때마다 불거져 나왔던 무분별한 가스총과 수갑 사용,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를 중심으로 한 표적단속과 탄압이 법무부에 의해 자행됐다"며 "이주노동자들을 그물 총으로 잡겠다는 것은 사람이 아닌 짐승 취급하고 싶다고 소리 지르는 것이나 진배없다"며 법무부의 반 인권적 발상을 규탄했다.

▶ 유엔 인권위에 정부의 인권침해 및 성직자 폭행사실 알리겠다



▲ 강제추방 중단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 중인 이주노동자들

4. 미국시민권은 하늘나라 티켓?

개 요

□ 활동목표

-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적 정체성과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구애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역할극으로서 최근 원정출산 및 불법 한국인의 문제를 둘러싼 왜곡된 의식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다문화적 가치를 그려보게 한다.
- 미국에서는 차별받고 한국에서는 우리보다 못한 외국인을 차별하는 한국인의 이중성을 허황된 꿈으로 그려봄으로써 지구촌 사회의 인종적 서열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 활동요약

- 20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5명씩 4모듬을 만들어 우리사회의 왜곡된 민족의식을 고발하는 역할극을 하도록 한다.
- 모듬별 주제를 선정하여 필요한 각본을 짜고 그것을 극화하는 일종의 사회극을 해 본다.

□ 진행개요

- 지도자 : 전체 진행자 1명
- 참가인원 : 20명(5명씩 모듬 구성)
- 장 소 : 실내
- 소요시간 : 1시간
- 준 비 물 : 다양한 시사 자료 예시

□ 유의사항

- 청소년들의 활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들이 궁금해 하는 외제선호 및 해외유학 그리고 국제결혼 등을 자연스럽게 주제로 예시한다.
- 청소년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느낌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열린 분위기를 조성한다.
- 전문적인 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을 표출할 수 있는 생활 주제를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참여를 하도록 권장한다. 수줍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활동내용

활동 1 : 모둠별 주제 탐색

- ▶ 주요내용 :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미국지향성의 다양한 예를 자연스럽게 논의하도록 한다.
- ▶ 소요시간 : 20분 내외
- ▶ 준비물 : 각종 시사 잡지 및 신문, 구할 수 있으면 토론용 비디오테이프, VTR 1대
- ▶ 진행과정
 - 진행자는 자연스럽게 참가자를 다섯 모둠으로 나누어 미국에 가고 싶어 하고 미국시민권을 따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의 성향에 대해 이야기 보따리를 푼다.
 -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주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자기 모둠의 역할극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콘티를 짜도록 한다. <자료 1. 참조>
예시 : 원정출산
미국에서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실패한 아이 성공한 아이

응용활동

- 미국시민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되 직접 관련이 안되더라도 이런 탈한국 열풍을 다룬 주제면 무방하다.

활동 2 : 미국시민권은 하늘나라 티켓 역할극

- ▶ 주요내용 : 모둠별로 결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5분씩 역할극을 시연한다.
다섯 명 모두가 역할극에 참여해야 하며 역할극의 주인공과 일치되도록 노력한다.

▶ 소요시간 : 30~40분

▶ 준비물 : 역할극본 및 콘티 짜기 그리고 필요한 소품

▶ 진행과정

- 주제에 따라 역할을 나눈다.
- 5분 이내 역할극을 시연한다.
- 나머지 청소년들은 청중이 되어 주제를 생각하며 집중한다.
- 서로가 만든 역할극을 비교하며 종합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미국시민권에 대한 허위의식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 소수의 성공한 재미교포와 수많은 가난한 재미교포를 비교하며 미국사회의 외국인차별에 대해서도 이해한다.
- 미국에서 차별당하는 한국인과 한국에서 다른 외국인을 차별하는 우리의 자화상을 보면서 역지사지를 통한 공존의 가치를 습득한다.

도움자료

□ 자료 1. 참고문헌

- 캐나다 밴쿠버의 기러기들, 월간조선 2003년 9월
- 전직교사의 세 자녀 조기유학체험기, 월간조선 2003년 9월
- 바람난 기러기엄마들, 시사매거진 2580

□ 자료 2. 미국시민권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

▶ 질문: 미국 시민권이냐 한국시민권이냐... 도와주세요...

지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입니다.

17세죠.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중국적 상태입니다.

18세가 되기 전에 국적을 선택해야합니다.

저는 10살까지 미국에서 살았다가 한국에서 쫓겨왔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여태 한국국적을 선택할 꺼라고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업이니 성적 같은 요인들이 제 결심을 흔들리게

하고 있네요. 지금 저는 그다지 좋지 않은 성적을 갖고 있어요.

잘하는 건 그저 영어뿐입니다.

그건 미국에서 살았기에 아니고 한국 와서 공부해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10살까지는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그냥 놀고 먹고 그럴 때죠. 하지만, 미국에서 살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영어 잘한다고만 생각들 하시더군요.

하지만, 현실과 반대로 전 영어는 최하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이겨내지 못하고 영어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 말이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요.

지금 국적을 선택해야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근처에서는 모두 미국 시민권을 선택하고 미국으로 유학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미국은 뭐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안되는 공부 그쪽으로 가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구
 요. 전 가능하면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뭐 물론 미국 국적을 선택해도 한국에서 살수는 있지만,
 한국에서는 받지 못하는 혜택들이 있죠. 주민등록번호나 그런게 없죠.
 그리고 2년 마다인가? 미국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더군요.
 지금 그렇게 비행기표 값도 한 왕복 100만원정도 할텐데 저는 그런 돈
 이 없습니다. 저희 집안도 그리 대단한 부자집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저희 친척이 있어서 숙소 문제는 해결됩니다.
 어째서 사람들은 미국이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제가 철이 들어서 지낸 곳이라 그만큼 제게 소중한게 느
 껴집니다.
 미국 국적 선택해서 군대 피하는 건 생각도 안했습니다.
 군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제 미래가 그저 걱정될 뿐입니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질문들이 여기 저기 있는데 지금 정리해 드리겠습
 니다.

1. 미국 시민권 선택해서 뭐가 좋은가요?
2. 미국 유학 가서 좋은 거 있나요?
3. 미국 가면 공부하기가 더 좋은가요? 기회는 많이 주어지나요?

대답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 미국 시민권이냐 한국시민권이냐... 도와주세요...

1. 미국 시민권 선택해서 뭐가 좋은가요?

- 일단 군문제가 대표적이겠군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군대걱정 없이

공부에 열중할 수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이면 공립고등학교 학비 면제할 수 있구요. 미국 갈 때 비자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 미국국적에 따라 미국여권을 소지하고 있을시 미합중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국 유학 가서 좋은 거 있나요?

- 당연하죠. 미국은 솔직히 한국보다 공부환경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것도 참--;;괴로운 일이죠. 일단 우리나라처럼 힘들게 공부할 필요 없이 여유롭게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구요 과목수도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듣는 과목수의 1/2 가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를 더 확실히 할 수 있을 꺼구요.

3. 미국 가면 공부하기가 더 좋은가요? 기회는 많이 주어나요?

- 네 한국보다는 훨씬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다.

공부는 위에 언급했듯이 훨씬 여유롭게 공부 할 수 있구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피나는 노력에서 전 세계 대학랭킹 200위권의 서울대도 반에서 1~2명만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 나온다고 해서 당장 먹고살 길이 마땅치 않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공부해도 미국 웬만한 주립대 --세계대학랭킹 100위안에 드는 곳은 쉽게? 갈 수 있겠구요. 한국처럼 열심히 노력한다면 세계최고의 명문 아이비리그에도 도전해볼 만 하구요. 그리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먹고살 것은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신의 진로나 공부환경..또 생활이나 삶의 질..

군 문제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국보다는 미국이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꼭지주시구요

힘든 결정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 미국 시민권이냐 한국 시민권이냐... 도와주세요...

1. 미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혜택이 많으므로 일단 이걸 패쓰
[너무 많음]
2. 유학가면 좋은 점은 학비를 대출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미 시민권자가 대학에 입학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다닌다는 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학비 대출해주고 장학금 채도도 시민권자
에게 엄청 유리합니다.
3. 공부하기 더 좋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미국국적을 얻기 위해서 미국 내에 1200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있고
불/합법적으로 시민권을 얻으려고 별짓 하는 사람 많습니다. 님 확
실히 한국국적하면 후회합니다.

Ⅳ. 복지에 있어서 외국인 차별

- 5. 순심씨의 사랑과 아픔
- 6.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
- 7. 우리를 돕는 한국친구들

5. 순심씨의 사랑과 아픔

개 요

□ 활동목표

- 외국인 남성노동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사는 이순심씨가 겪는 생활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사회에서 가해지는 외국인노동자 가족에 대한 차별을 이해한다.
-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노력을 하도록 평화감수성을 키운다.

□ 활동요약

- SBS 뉴스추적 “외국인노동자 유입 10년; 이 땅에 살기 위하여(2000. 9. 5)”를 보고 우리 사회에 잘 동화할 수 없는 문화적 편견과 제도상의 문제를 토의한다.(비디오보기)
- 고용허가제가 근본적 해결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과 함께 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공감하기)

□ 진행개요

- 지 도 자 : 전체 진행자 1명(전체진행), 보조 지도자 3명(소집단 지도)
- 참가인원 : 30명 내외(6~7명 내외의 모둠 구성)
- 장 소 : 실내
- 소요시간 : 1시간 30분
- 준 비 물 : 비디오 테이프, 전지, 대화방, 사인펜 등 필기도구

□ 유의사항

-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준비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 청소년의 특성과 흥미를 잘 이해하여 사춘기 청소년들이 부딪히는 결혼문제를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 청소년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느낌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열린 분위기를 조성한다.
- 순심씨의 결혼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가족이 느끼는 고통에 대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내용

활동 1 : 비디오 시청하기

- ▶ 주요내용 : 지난 10년간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들어와 기여한 부분과 이들을 배척하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제도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시청한다. 이를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 가족이 부딪히는 생활상의 문제를 토의하며, 특히 결혼이 가져오는 사랑과 슬픔에 대해 감동적으로 접근한다.
- ▶ 소요시간 : 1시간 내외
- ▶ 준비물 : 메모지나 공책, 필기도구, 토론용 비디오테이프, VTR 1대
- ▶ 진행과정
 - 비디오를 50분간 편한 자세로 시청한다.
 - 비디오 시청 중 질문이 있으면 그 때마다 지도자에게 질문한다.
 - 자신의 감정이 충분히 이입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시청할 여건을 조성한다.
 - 비디오 시청 후 간단히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응용활동

- 준비한 비디오 외 인권영화제 출품작 “여정” 등 외국인 노동자 영상자료를 대체해도 좋다. 청소년들이 직접 비교하여 가장 좋은 비디오를 보자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유연하게 대처한다.
- 가능하면 외국인노동자 1-2명이 함께 시청하면서 변화된 상황이나 진실에 대해 직접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 2 : 만약, 내가 외국인과 사랑하게 된다면?!

- ▶ 주요내용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 가족에 대해 국적별로 분류하면서 국적 취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에 대해 논의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5조와 16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배타적 결혼제도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 가족협약을 우리 정부가 비록 비준하지는 않았어도 이러한 정신을 존중해야 할 세계시민적 의무가 있음을 공감하도록 한다.

- ▶ 소요시간 : 30분 내외

- ▶ 준 비 물 : 전지 및 모둠별 필기도구

- ▶ 진행과정

- 비디오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적별 외국인 노동자가족의 문제를 다룬다. 특히 순심씨의 경우처럼 한국여성이 외국인노동자와 사랑하여 결혼한 후 아이가 생겼을 때 이 아이의 국적취득 문제와 남편의 고용허가 등의 문제로 인해 새로운 가족이별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 외국인노동자 가족 현황을 소개받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국제규약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 모둠별로 대안을 찾아 원하는 미래를 그린다.
- 집단 걸개그림을 붙여놓고 내용을 공감하며 미래를 향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 응용활동

- 그림을 그리도록 장려하나 모듬에 따라서 몸으로 표현하거나 노래 혹은 역할극 및 글로 나타낼 수 있다.

도움자료

□ 자료 1. 세계인권선언

☞ 1948. 12. 10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

○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으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의 친선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긴급하며, 국제연합의 여러 국민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달성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이들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러한 서약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따라서 이제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 및 회원국 관할하의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국가에 대한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 자료 2.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채택일 1990. 12. 18 / 미발효 / 당사국 수 15 / 대한민국 미가입

○이 협약의 당사국은 인권에 관한 국제연합의 기본적인 문서, 특히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담긴 원칙들을 고려하고, 국제노동기구 체제 내에서 만들어진 관련 문서, 특히 취업목적의 이주에 관한 협약(제97호), 학대 상황의 이주와 이주노동자의 기회 및 처우의 균등증진에 관한 협약(제143호), 취업목적 이주에 관한 권고(제86호), 이주노동자에 관한 권고(제151호),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 등에 규정된 원칙과 기준을 고려하고,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에 내포된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범죄의 예방 및 범죄자의 처우에 관한 제4회 국제연합회의의 선언, 법집행관을 위한 행위준칙, 노예제도에 관한 각종 협약을 상기하고, 국제노동기구의 목적 중의 하나가 그 헌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국 이외의 나라에서 고용된 노동자의 이익보호인 점을 상기하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 기구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음을 유념하고, 국제연합의 각종기관, 특히 인권위원회, 사회개발위원회 및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보건기구 및 기타의 국제기구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관하여 달성한 업적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역적 내지 양자간 단위를 기초로 하여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대하여 일부 국가들에 의하여 달성된 성과는 물론, 이 분야에서의 양자 및 다자협정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인정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관련되어 국제사회에서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주현상의 중요성과 정도를 실감하고,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관계국과 그 국민에 미치는 충격을 인식하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을 수용함으로써 각국의 태도 조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규범의 수립을 회고하고, 무엇보다도 출신국에 없다는 점과 취업국에 체재함에 따라 직면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종종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됨을 고려하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가 충분히 인식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적절한 국제적 보호가 필요함을 확신하고, 특히 가족 이산으로 인하여 이주는 이주노동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에게도 종종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을 고려하고, 이주와 관련된 문제들은 비정규 이주의 경우에 한층 심각하다는 점에 유의하여,

그들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를 보장함과 동시에 이주노동자의 은밀한 이동과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하여는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져야 함을 확신하고, 미신고 또는 비정규적 상황하의 이주노동자는 종종 다른 노동자보다도 불리한 근로조건하에 고용되어 있으며, 일부 고용주는 불공정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에 현혹되어 그 같은 노동력을 찾는 점을 고려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다 광범위하게 승인된다면 비정규적 상황의 이주노동자의 고용에 의지하기가 단념될 것이며, 나아가 정규적 상황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일정한 권리를 추가로 인정한다면, 모든 이주노동자와 고용주가 당사국의 법률과 절차를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이 촉진될 것임을 고려하고, 그러므로 범세계적으로 적용될 포괄적인 협약에서 기본규범을 재확인하고 확립하여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달성할 필요성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자료 3. 한국의 호주제 문제에 의한 여성들의 피해

호주제는 민법 및 호적법상 명백한 차별을 야기하여 헌법을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타 다른 법률 및 사회보장제도에도 간접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남녀차별과 불평등을 유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률이 여성을 남성의 부속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섭외사법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현행 섭외사법은 호주제에서 비롯된 아버지·남편 우선 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섭외사법에서 ‘외국인과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남편의 본국법에 의한다(섭외사법 제18조)’는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 남성은 혼인, 친자관계, 부부재산제, 이혼에 관해서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 여성은 남편의 본국법인 외국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남계 혈통만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명백한 여성차별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이 외국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 이 경우 외국에 거주하는 남편 소속 국가의 법원 또는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가사소송

법 제13조 제2항) - 이혼 및 자녀 양육·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관하여 남편의 본국법인 외국법 절차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처럼 섭외사법은 이혼 뿐 아니라 혼인의 효력(섭외사법 제16조), 부부재산제(동법 제17조), 친생자관계(동법 제19조), 친자간의 법률관계(동법 제22조)에 대해서도 남편의 본국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명백한 부부차별, 부모차별을 하고 있다.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와 더불어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의 이혼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경우 섭외사법은 한국 여성들을 한국 법의 테두리 밖으로 내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 섭외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남녀차별적 조항을 부분적으로 개정한다 하더라도 가부장적 관습과 사고에 기인한 차별의 근원인 민법상의 호주제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남녀차별, 부부차별, 부모차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 출처 : 광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6.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

개 요

□ 활동목표

-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 합법 혹은 불법으로 거주한다고 할 때 그 가족이 일반적으로 겪는 생활상의 고통을 이해하게 하여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도록 하게 한다.
- 모든 어린이는 어느 국가에서 살든지 사회로부터 일차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아동권리협약이 밝히고 있고 대한민국정부가 이를 비준하였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입학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인식을 하도록 돕는다.

□ 활동요약

- 어린이 권리 협약을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 어린이의 인권에 대해 바로 알 수 있도록 한다.
- 어머니들과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선생님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에 대해 토론해 본다.

□ 진행개요

- 지 도 자 : 전체 진행자 1명
- 참가인원 : 10~30명 내외
- 장 소 : 가정과 유치원 등 방문
- 소요시간 : 3시간
- 준 비 물 : 어린이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전문, 녹음기 및 기록장, 사인펜 등 필기도구

□ 유의사항

- 청소년들의 지적인 비판 활동이므로 다소 지루할 수 있다.
- 청소년의 특성과 흥미를 잘 이해하고 진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청소년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느낌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열린 분위기를 조성한다.
- 가정방문을 통한 인터뷰에서 너무 사적인 질문을 하지 않도록 미리 조정한다. 질문 유형을 미리 살펴본다.

활동내용

활동 1 : 외국인노동자 어린이 인권 바로 알기

- ▶ 주요내용 : 대한민국 정부도 비준한 “어린이권리협약”에 외국인 어린이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가 보호대상인 외국인 어린이를 장치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한다.
- ▶ 소요시간 : 1시간 내외
- ▶ 준비물 : 어린이 권리협약 전문 혹은 요약된 보조자료, 메모지나 공책, 필기도구
- ▶ 진행과정
 - 자연스럽게 적당한 수가 한 모듬을 만들어 그 안에서 사회자를 지정하고 사회자를 중심으로 어린이협약의 정신, 내용구성, 적용여부 등에 대해 분석하고 이해한다.
 - 특히 외국인 어린이에 관한 규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 모든 어린이들은 사회적 보호를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협약 정신에 공감한다.

활동 2 : 우리는 기자! 인터뷰하러 출발!

- ▶ 주요내용 :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모성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가정과 유치원, 어린이집들을 방문하여 일일 기자가 되어 인터뷰한다.
- ▶ 소요시간 : 2시간 내외
- ▶ 준비물 : 인터뷰 질문지, 기록장 및 녹음기

▶ 진행과정

- 방문 대상을 배정받는다. (외국인 노동자 가정, 우리나라 가정, 유치원)
- 공손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이 찾아온 목적 및 알고 싶은 문제에 대해 5분 정도에 걸쳐 간단히 소개한다.
- 쉬운 질문부터 시작하여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으로 나아간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가정에 방문했을 경우, 문장은 쉽고 간결하게 구성한다.
- 인터뷰가 끝난 후 집결지에 모여 인터뷰 내용과 진행상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인터뷰 한 내용을 기사화하여 정보를 교류한다.

☞ 응용활동

- 인터뷰로 일단 활동은 끝나지만 개인에 따라 일간지 독자투고란에 자신의 의견을 기고하는 등 적극적인 외국인노동자 어린이 인권을 옹호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도 좋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의형제를 맺는 등 다양한 후속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도움자료

□ 자료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채택일 1989. 11. 20 / 발효일 1990. 9. 2 / 당사국 수 191 / 대한민국 적용일 1991. 12. 20¹⁾

○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가족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며,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

1) 유보 :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약을 심의한 후, 이 협약의 제9조 제3항, 제21조 (a) 및 제40조 제2항 (b)(v)의 규정을 유보하면서 이 협약을 비준한다.

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선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고, "국내적 또는 국제적 양육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및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의 제규정, "소년법 운영을 위한 국제연합 최소 표준규칙"(베이징 규칙) 및 "비상시 및 무력충돌시 부녀자와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 자료 2. 외국인 노동자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농촌의 코시안, 한글교육·자녀상담 상설기관 절실

농촌의 코시안

‘대충’배운 우리말 체계적 학습 원해

보육비 전전궁궁...일자리 배려 시급

실태 살펴 엄마·아이 함께 보듬어야

6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시 서구 농성동 한 소아정신과. 필리핀 엄마 에그린(가명·33)과 한국인 아빠(38) 사이에서 태어난 성주(5·가명)가 치료를 받고 있었다. 석 달 전 성주는 또래보다 말이 늦어 ‘발달성 언어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성주의 엄마는 전남 무안에서 살다 2001년 12월 남편의 폭력을 피해 광주로 왔다. 성주는 한창 말을 배울 시기에 엄마한테 언어 자극을 받지 못했다. 처음엔 잔뜩 움츠린 표정으로 “안 해” “취” 등 묻는 말에만 짧게 반응하다 최근 언어치료사와 눈을 맞추기 시작했다. 성주는 이날 종이 겹치기 놀이를 그만하자는 말에, “더 해”라고 반응을 보여 엄마를 기쁘게 했다. 일주일에 한번씩 병원을 찾고 있다. 농촌에 코시안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동남아 출신 여성들이 10여 년 전부터 한국 농촌에 시집와 낳은 아이들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소수자다.



△ 전남 장흥군에 사는 필리핀 출신 주부 로리타비가 집 마당에서 딸 의진(가명·7)이와 아들 대성(가명·6)이를 보며 웃고 있다.

농촌에 사는 외국인 며느리는 전국적으로 대략 1만여 명 정도로 추정된다. 전남도가 지난 3월 조사한 결과, 도내 외국인 주부는 1953명으로, 중국인(592명)이 30.3%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인(585명), 일본인(511명), 타이인(61명), 베트남인(52명), 대만인(25명), 몽골인(11명)이 그 뒤를 따랐다. 도별 농촌지역 외국인 주부 수는 전남이 가장 많고 △강원 1299명 △충남 976명(천안·예산 제외) △경북 844명 △충북 741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경기·경남·전북 등에는 통계치가 아예 없다.

농촌의 코시안은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전남 장흥군 초등학교 1~6학년 166명 가운데 7가구 14명이 외국인 엄마와 살 정도로 비율이 점차 늘고 있다. 농촌의 코시안들은 산업연수생으로 온 동남아 출신 아빠와 한국인 엄마가 이룬 '도시 코시안'과는 환경이 다르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보다 문화적 차이가 큰 필리핀·베트남·타이 출신 여성의 자녀들은 외국인 엄마의 영향으로 말이

늦게 터지고 학습이 부진한 경우가 많다. 일부는 비정상적인 가정 환경때문에 정서장애 증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필리핀 엄마(38)와 사는 연수(6·가명) 역시 말이 더디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증상을 보였다. 지난해 7월 지능검사에서 연수는 동작성 지능은 또래와 비슷했으나, 언어성 지능은 훨씬 낮게 나왔다. 소아청소년병원 최정인 정신과 전문의는 “아빠의 음주 폭행과 부모의 이혼 등 가정환경에서 상처를 받은데다, 엄마와 제대로 대화를 못해 나타난 증상”이라고 말했다. 연수는 최근 “형아가 때려서 여기가 다쳤어”라며 주말에 지냈던 일을 얘기할 정도가 됐다.

“하진(6살·가명)이는 한국 말 잘해요. 나는 힘들어요. 한국 말과 영어 같이 해요. 딸이 학교 가면 공부 힘들어요.” 전남 함평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사는 필리핀 출신 넬리더 코르테스(41)는 ‘반토막 한국어’로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게에 오면 일부러 말을 건다”며 “딸의 책을 함께 읽으며 공부하지만 힘들다”고 말했다.

9년째 강원도 횡성에서 사는 필리핀 출신 아델과 빌라도리스(38)는 “초등학교 딸이 반아쓰기를 가져오면 아빠에게 부탁한다”며 “딸의 공부를 도와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딸이 서툴러 학교를 방문해 교사와 자녀 문제를 상의하는 것도 꺼린다. 전남 장흥의 필리핀 출신 로리타비 와드와찬(42)은 “학교에서 보낸 안내장을 이해 못해 실수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언어문제뿐이 아니다. 농촌 코시안들은 피부색이 다른 엄마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받는다. 아이들은 사람들의 눈길을 통해 이를 눈치챈다. 로리타비의 딸 의진(7·가명·초등1)이는 엄마가 운동회에 다녀간 뒤, “친구가 ‘니네 엄마 아프리카지?’라고 놀린다”고 말했다. 한 필리핀 엄마(38)는 “큰아들(7·초등1)이 ‘엄마 때문에 준비물을 제대로 못 챙겨 가 벌을 받았다’며 발로 차는 등 무시할 때 마음이 아프다”고 털어놓았다.

농촌의 외국인 주부들은 자녀들의 상급학교 진학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필리핀 여성 데라라 롤미타(46·경산시 용성면)도 “딸(6)이 초등학교 진학 전 한글을 배우도록 하고 싶으나 마땅한 교육기관이 없다”며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식당에서 일하며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다.

7. 우리를 돕는 한국 친구들

개 요

□ 활동목표

- 외국인노동자들이 돈을 벌러 한국에 왔지만 한국에 대한 이중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그 중 자신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시민단체를 통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살아가도록 이러한 활동을 알린다.
- 외국인노동자 인권옹호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를 바로 알고 이를 널리 확산시킨다.

□ 활동요약

- 시민단체 바로 알기
- 국가인권위원회

□ 진행개요

- 지 도 자 : 전체 진행자 1명
- 참가인원 : 30명 내외(6~7명 내외의 모둠으로 재구성)
- 장 소 : 다양한 공간
- 소요시간 : 2시간 내외(단위활동들을 재구성하여 활용 가능)
- 준 비 물 : 메모지나 공책, 필기도구

□ 유의사항

- 청소년들의 활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제별로 시민단체를 분류한다.
- 주제와 흥미에 따라 5명 이상 한 모둠으로 나누어 준비를 한다.

- 청소년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느낌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열린 분위기를 조성한다.
- 미리 조정한 일정에 따라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 활동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활동내용

활동 1 : 시민단체 탐방

- ▶ 주요내용 :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시민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NGO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시민사회의 장점과 한계를 인식하도록 하게 한다.
- ▶ 소요시간 : 1시간 내외
- ▶ 준비물 : 문서로 된 기관소개용 보조자료, 메모지나 공책, 필기도구
- ▶ 진행과정
 - 청소년들을 주제에 맞춰 다양한 모둠으로 나눈다. 활동시간은 2시간이지만 이동시간과 재결집 시간까지 합하면 거의 하루가 소요된다.
 - 교육, 인권, 산업재해, 문화체험 등 다양한 주제별 특성화 기관을 분류하고 청소년들은 자신의 관심을 잘 정리하여 탐방시간동안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정보를 얻는다.
 - 20~30분 정도 설명을 들은 후 질의시간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교류한다.
 - 시민단체 탐방에 대한 결과를 정리한다.

활동 2 : 국가인권위원회?

- ▶ 주요내용 :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기구로서 2001년 인권운동과 정치적, 사회적 민주화의 결과 우리나라에 만들어졌다. 인권위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중요한 인권침해로 단정하고 이를 금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한계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통해 정부가 하고 있는 인권신장노력을 알아본다.

▶ 소요시간 : 1시간 내외

▶ 준 비 물 : 홍보지 및 사인펜 등 필기도구

▶ 진행과정

- 시민운동단체를 견학한 후 집결지에 모여 정보를 서로 교류한 후 인권 위로 이동한다.
- 인권위 배움터에서 사무총장으로부터 인권위 소개와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에 관한 인권위의 입장에 대해 설명을 듣는다.
- 시민단체와 인권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경청한다.
- 인권위의 법적, 제도적 한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노력할 부분에 대해 정리한다.
- 외국인을 돕고 지원하는 정부, 비정부 기구를 탐방하면서 시민사회에서의 공동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도움자료

□ 자료 1.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신분보장을 받으며, 겸직이 제한된다.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의 요구 및 사실조회, 청문회의 개최, 시설의 방문조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인권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에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사는 국가기관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소추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진정에 대하여 그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에 조정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진정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조정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구제에 필요한 사항의 권고와 요청, 고발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내용과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누구든지 위원회에 진정·진술·증언·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6장 6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출처 : 두산백과사전

□ 자료 2.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고 있는 시민단체들

1.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1) 인권상담 및 노동 상담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 상담과 출국 문제, 가정문제, 송금문제 등의 상담을 합니다.

2) 의료

이주노동자 중심으로 "의료공제회"라는 이름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자체 운영합니다.

매주 첫째 세째 일요일에는 동대문운동장 근처에 있는 경동교회에서 '선한 이웃 클리닉', 그리고 둘째 넷째 일요일에는 덕수궁 옆에 있는 정동교회에서 '아가페 클리닉'이란 무료진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긴급의료비를 지원합니다.

3) 쉼터 운영

아프거나 일을 하다가 다친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위해 잠자고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4) 교육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습득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주 일요일에는 한국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외에도 노동교육, 귀환 교육, 생활 교육, 기술교육 등을 필요시에 실시합니다.

5) 공동체구성 및 지원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의 정보교류와 친목도모를 위해 나라별로 공동체 모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만들어진 공동체가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네팔,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등

6) 법제도 개선운동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유린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잘못된 법제도를 개선하는 일을 합니다.

7) 국내 및 국제적 연대 강화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센터 독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와 국제 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바람직한 길을 모색합니다. 선한 이웃 클리닉, 아가페클리닉,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기장 외국인이주노동자선교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의료공제회, 기장 생명선교연대, 기장 사회복지협의회 등 이주노동자나 민중과 연관된 단체와 연대

8) 문화사업

체육대회, 야유회, 한국문화체험, 나라별 축제 등

9) 홍보

다음까페, 홈페이지, 격월로 발행하는 소식지 '나그네합창', 그 외 외부 방송 매체 등을 통하여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저희 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원활동에 관한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경동교회 소속 선한이웃클리닉- 외국인 노동자 무료 진료소

1) 목 적

선한 이웃 클리닉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의료 봉사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데 있습니다.

2) 만들어진 과정

선한 이웃 클리닉은 2000년 1월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 외국인노동자 선교협의회로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의료 실태를 전해 듣고, 이들에게 의료혜택을 베푸자는 취지에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 경동교회가, 동네의원 살리기 운동본부, 외국인노동자 의료 공제회, 한국 기독교 의료선교협회의



'사랑의 의료봉사(주관:국민일보)'와 한국 기독교의사회의 지원으로 2000년 4월 23일(부활절)에 시작하였습니다.

3.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 노동집약업종 기술혁신 자동화 촉구 지원단

노동집약 산업은 내국인 고용효과 외에는 우리경제의 선진국 진입에 장애가 되는 업종이다. 따라서 비교우위 해외국가로 이전 또는 기술혁신과 자동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타 업종으로 전환하는데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거부하고 외국인 인건비 의존 기업은 정부의 세제 혜택 중단, 엄격한 환경, 노사, 산재 문제점을 통하여 퇴출시키는 것을 주 활동목적으로 한다.



일용직들의 출입국관리소시위



일용직들의 명동성당시위

V. 외국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

8. 우리 모슬렘은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9. 살색???

8. 우리 모슬렘은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개 요

□ 활동목표

- 9.11 이후 미국에 의해 과장된 이슬람에 대한 테러리스트적 동일시로 인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곤경에 처해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 “한손에 코란을 다른 한 손엔 칼을” 이러한 슬로건으로 알려진 이슬람도 똑같은 평화의 종교라는 이해를 가지도록 노력한다.

□ 활동요약

- 전문가 초청 강연 : 이슬람사원의 이맘을 초청하여 이슬람의 사상을 경청
- 동남아 국가에서 온 모슬렘들과 이야기 나누기

□ 진행개요

- 지 도 자 : 전체 진행자 1명(전체진행)
- 참가인원 : 30명
- 장 소 : 이슬람 사원
- 소요시간 : 강연 1시간, 교류시간 2시간
- 준 비 물 : 이슬람 자료-EBS “이슬람을 알다” 다큐멘터리 자료, 코란, 전통의상, 사진자료, 역사책 등

□ 유의사항

- 청소년들의 활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 청소년의 특성과 흥미를 잘 유도할 수 있도록 이슬람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부탁한다.
- 청소년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느낌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열린 분위기를 조성한다.
- 이슬람 예배양식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활동내용

활동 1 : 이슬람 사원 방문-이맘과의 대화

- ▶ 주요내용 :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 사원을 방문하고 사원에서 존경받는 이맘으로부터 이슬람 사상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다. 한국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슬람사상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폭력의 종교로서 알려진 이슬람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한다.
- ▶ 소요시간 : 1시간 내외
- ▶ 준비물 : 전문가(이슬람사상가·가능하면 이맘), 사원체험을 해보도록 함, 코란과 같은 문서로 된 보조자료, 메모지나 공책, 필기구
- ▶ 진행과정
 - 강연자에게 어려운 종교적 주제를 피하고 청소년의 특성과 흥미를 잘 이해하고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내용과 주제로 재구성하여 설명해주도록 부탁한다.
 - 기독교나 불교에 익숙해 있는 한국의 청소년들의 문화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구성한다.
 - 가능하면 대화식으로 진행한다. 30분 정도 설명하고 30분은 대화로 진행하기를 희망한다.
 - 필요시 EBS가 제작한 '이슬람을 알다' 5부작을 미리 보고 오도록 청소년들에게 과제를 줄 수도 있다.
 - 30~40분 정도 강연을 실시한다.
 - 강연을 마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이들의 종교적 행위의 특징이 문화적 차이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유의사항

-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종교인 이슬람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하게 함으로써 지구상에서 타문화와 공존할 수 있는 심성을 갖추게 한다. 부정적 선입관이 있는 사람을 위해선 특히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 이슬람과 폭력에 대한 연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 응용활동

- 9.11과 관련하여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이해도 관련시킬 수 있으면 노력해 본다.
- 예시 : 중동에서의 갈등 및 인도네시아 갈등에서 이슬람이 처한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고 비판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방글라데시 노동자에 대한 편견도 다각도로 해석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불식하도록 하게 한다.
(2004년도 국정감사 자료)

활동 2 : 이슬람 친구!! 나랑 친구하자!

- ▶ 주요내용 : 사원에 기도하러 온 이슬람 노동자와 인사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라는 공감대를 갖게 한다.
- ▶ 소요시간 : 2시간 내외
- ▶ 준비물 : 간단한 차와 간식
- ▶ 진행과정
 - 이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사원에 기도하러 온 이슬람 사람들과 만난다.
 - 그들의 사진이나 그림자료, 문헌자료를 이용하여 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 되도록 2인 1조 또는 이슬람 노동자 1명에 우리 청소년 2~3명이 한 조가 되어서 이슬람 사원에서 이야기 나누기 또는 시간제한을 두고 같이 근처 밖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거리를 다닐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
-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이들의 문화를 공유하도록 한다.
- 청소년들은 이들의 피부색, 음식, 노래, 언어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한다.
- 서로가 이러한 만남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 이들이 한국에서 느끼는 문화적 단절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폐쇄적인 태도를 반성한다.
- 서로의 주소를 적어주며 지속적인 교류를 할 것을 약속한다.

도움자료

□ 자료 1. 이란대사관(www.mofat.go.kr/iran)

▶ 이란의 문화

○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중간지대에 위치하여 동서문명(Silk Road)의 가교 역할을 했으며, 북방 유목민족 문화와 인더스-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흡수, 복합문화를 형성함.

○ 북핵민족국가로서 인종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90% 이상이 열두 이맘파의 시아파 이슬람을 신앙하고 있어 이러한 종교적 연대에 의해 국가의 단일성 유지하고 있음.

○ 이러한 종교적 단일성 때문에 셀주크투르크, 몽고 등 이민족지배에도 동화되지 않음.

○ 회교 이전의 페르시아적 문화요소(조로아스터교, 노루즈(신년))도 회교 문화 속에 융해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남아 있음.

○ 회교혁명 후 국민생활의 이슬람화가 촉진되었으며, 금요기도회는 종교행사인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일체감과 정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

○ 시아파 최대 종교행사는 Ashura로서 전국가적인 애도 분위기임(3대 Imam Hussein이 전장에서 순교한 날)

○ 라마단(금식월)을 준수하고, 매년 Hajj기간중 8-9만명의 순례객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성지를 방문 이슬람 율법(Islamic Code)은 특히, 남녀의 유별성을 강조

○ 식생활은 유목, 촌락생활에서 유래한 바 많으며, 날 것이나 비늘 없는 해산물(뱀장어, 조개 등)을 먹지 않으나, 새우는 비늘이 없어도 좋아함. 돼지고기, 개고기는 금기시

○ 이란인들은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으며 Ferdowsi, Sadi, Hafez 등 뛰어난 시인의 작품 섹귀절을 일상생활에 새기고 있으며, 이들을 민족적 영웅으로 숭상함.

○ 이슬람문명과 회교혁명에 따른 문화, 사회생활은 97. 8 Khatami 신정부의 "문명간 대화" 통한 개혁. 개방정책에 따라, 개방화가 계속되고 있음.

*출처 : 이란대사관 홈페이지

□ 자료 2. 이슬람교와 이슬람문화

1) 이슬람교

그리스도교·불교와 함께 세계 3대 종교의 하나이다. 전지전능(全知全能)한 알라의 가르침이 대천사(大天使) 가브리엘을 통하여 마호메트에게 계시되었으며, 유대교·그리스도교 등 유대계의 여러 종교를 완성시킨 유일신 종교임을 자처한다. 유럽에서는 창시자의 이름을 따서 마호메트교라고 하며, 중국에서는 위구르족[回紇族]을 통하여 전래되었으므로 회회교(回回教) 또는 청진교(清真教)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이슬람교 또는 회교(回教)로 불린다.

(1) 알라와 《코란(쿠란)》: 알라는 다신교 시대부터 메카에서 최고신으로 숭배되어 왔는데, 마호메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모든 신을 부정하고 오직 알라만을 유일신으로 내세웠다. 알라는 만물의 창조주이며, 이와 동등하거나 비교될 존재는 없다. 모든 피창조물과는 엄격한 거리가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경동맥(頸動脈)보다도 더욱 가까이 있다. 알라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지만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마음은 어디까지나 관대하고 자애에 넘쳐 잘 용서하고, 잘 들어 주고, 잘 보아 준다. 알라는 진리이며 빛이며 “동도서도 알라의 것, 어느 쪽을 향해도 알라의 얼굴은 거기에 계신다. 골고루 존재하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코란 2:11)고 한다.

알라의 계시를 모은 것을 《코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호메트가 말한 내용으로서, 그가 죽은 뒤 신도들이 수집·정리한 것이다. 현재의 《코란》은 650년경, 제3대 칼리프인 오스만의 명을 받들어 만들어진 표준본이다. 이 경전은 이슬람의 교의(敎義)·제도, 마호메트의 생애와 사상을 알 수 있는 근본 문헌이며, 무슬림들은 이것을 독송할 때마다 법열(法悅)의 경지에 빠져 감격의 눈물을 흘릴 만큼 힘과 미를 갖춘 것이지만 그 진가는 아랍어로 된 원전에 따르지 않고는 좀체로 이해하기 힘들다.

《코란》은 마호메트에게 계시된 바를 해설이 없이 모은 것이므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후세 학자들이 쓴 많은 주석서(注釋書)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이슬람의 법학(法學)·신학(神學)의 최고 근원은 역시 《코란》에 있다.

(2) 이슬람의 근본신조: 이 가르침의 정식 명칭은 ‘알 알이슬람’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유일 절대적 알라의 가르침에 몸을 맡긴다”는 말로서 즉 ‘귀의(歸依)’를 뜻한다. 그 가르침은 모두 명확한 아랍어로 계시되었고 마호메트도 이것을 아랍어로 전달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알라 이외에 신은 없다”는 것이 이슬람교의 신조이며, 후에 “마호메트는 알라의 사자(라수르)이니라”가 추가되었다. 이 성구(聖句:카리마)를 외는 일은 신도의 중요한 의무의 하나로 되어 있다.

알라의 가르침을 모은 《코란》에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에 관하여 “믿음이란, 그대들의 얼굴을 동으로 또는 서로 돌리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알라와, 최후의 날(최후 심판의 날)과, 천사들과, 여러 경전(經典)과, 예언자들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 모든 사항을 믿는 것을 ‘이만’이라고 한다.

또 오로지 알라만을 믿고 그 외에 아무것도 숭배하지 않으며, 예배·희사(喜捨)·재계(齋戒) 등의 근행(勤行)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만이 알라에 귀의하는 길인데, 이것을 ‘이슬람’이라고 칭한다. ‘이만’을 지닌 사람을 ‘무민’, 이슬람에 입교한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부르므로, 이것들 모두가 이슬람교 신자의 호칭이다.

(3) 이슬람 신앙의 요소: 이슬람 신앙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의 셋으로 분석된다. 첫째는 ‘지(知)’인데, 이것은 알라의 계시를 잘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언(言)’인데, 마음으로 알고 또한 믿는 바를 말로 표현하는 일이다. 셋째는 ‘행(行)’인데, 이슬람교도로서의 의무(즉 5주 등)를 열심히 실행하는 일이다.

(4) 오주(五柱): 무슬림에게는 실행해야 할 중요한 의무 다섯 가지가 있다. 이것을 오주(아르칸 알이슬람:Pillars of Islam)라 하며, 이들 의무를 다함으로써 알라에게 봉사하는 일을 ‘이바다트(奉化 또는 勤行)’라고 한다. 《코란》에서는 희사와 단식(斷食)을 중요한 봉사로 들고 있으나, 후세에 이르러 다음의 다섯 가지를 가리키는 것이 상례로 되었다.

① 증언 또는 고백(샤하다): “나는 알라 이외에 신이 없음을 증언합니다. 또 나는 마호메트가 알라의 사자임을 증명합니다”를 입으로 외친다. 신도는 어릴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증언을 고백하게 되어 있다.

② 예배(살라트): 일정한 시각에 규정된 형식에 따라 행하는 예배를 말하며, 개인적으로 수시로 행하는 기도는 ‘두아’라고 부른다. 예배는 하루에 다섯 번을 일출·정오·하오·일몰·심야에 하며, 특히 금요일 정오에는 모스크에서 집단 예배를 행한다.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메카가 있는 쪽을 향하고 행한다.

③ 회사(자카트) 또는 천과(天課): 국가재정의 근간을 이루며, 비이슬람 국가에서는 선교기반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불가결한 무슬림의 의무중의 하나이다.

④ 단식(샤움): 성년인 무슬림은 매년 라마단 월간(月間:제9월) 주간(晝間)에 음식·흡연·향료·성교를 금하고, 과격한 말을 삼가며 가능한 한 《코란》을 독송한다. 단 음식은 흰 실과 검은 실의 구별이 안 될 만큼 어두워진 야간에는 허용된다. 라마단 월이 끝난 다음 새 달이 하늘에 떠오르면 단식완료의 축제가 시작되는데, 화려한 의상을 입은 군중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서로 축하하는 풍습이 있다.

⑤ 순례(하주): 모든 무슬림은 매년 하주의 달(이슬람력 제12월)에 카바 신전 부근 또는 메카 북동쪽 교외에서 열리는 대제(大祭)에 적어도 일생에 한 번은 참가할 의무가 있다. 능력이 없는 자는 하주를 못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해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으나 현재도 매년 약 20만 명에 달하는 신도가 하주에 참가하고 있다. 메카 다음가는 성지는 메디나에 있는 마호메트 묘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예루살렘의 여러 성적(聖蹟) 등이 있으며, 또 시아파(派) 무슬림은 알리의 묘(廟)가 있는 나자프, 알리의 아들 후세인의 묘가 있는 카르발라, 이란 동부의 마슈하드 등을 순례하는 사람이 많다.

(5) 교도의 일상생활: 이슬람 세계는 많은 이민족을 포함하고 있어 그들은 각각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사회의 요소는 지극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대한 지역에 분포하는 많은 무슬림은 하나의 형으

로 통일되어 공통의 생활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것은 샤리아(이슬람법)로써 통제되어 있기 때문이며, 샤리아는 《코란》과 《하디스 Hadith》(마호메트와 그의 추종자들의 전설에 관한 서적에 사용되는 명칭)에 입각하여 제정된 이슬람법이다. 무릇, 무슬림된 자는 출생에서 사망까지 이 샤리아에 따라 생활하도록 요구된다.

인간의 행위는 5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① 반드시 행해야 하며 이것을 하면 보상을 받고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 ② 가상(可賞)할 행위로, 이것을 행하면 보상받으나 행하지 않아도 벌을 받지 않는 것, ③ 허용된 행위로, 이것은 행하여도 보상도 없고 벌도 받지 않는 것, ④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이것은 행하여도 벌을 받지 않지만 그래도 행하지 않는 편이 좋은 것, ⑤ 금지된 것으로 이것을 행하면 알라의 벌을 받는 것이다(하람, Haram:이슬람법 용어).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먹거나 음주하거나 하는 일은 하람 ⑤에 해당한다. 그러나 하람에 대하여는 시대와 지방에 따라 의견의 차이가 있어 약간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중세 이래 모스크는 교도의 생활중심이 되어 왔으나 11세기 투르크가 각지에서 지배권을 장악한 뒤부터는 오로지 예배장소로만 되고, 그 밖의 기능은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스크를 생활의 중심으로 삼고, 한편으로는 샤리아에 따라 규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이슬람교도의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슬람 문화

사라센문화 또는 아라비아문화라고도 한다. 아라비아인을 정치적 중심세력으로 하여 이란인·투르크인들의 합작으로 이룩된 것이며, 동시에 고대 오리엔트 시대 이래의 서아시아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여기에 인도·그리스의 문화를 혼합하여 융합시킨 세계문화로서, 그 기초(基調)가 된 것이 이슬람교와 아랍어이다.

□ 자료 3. 이슬람(모슬렘)에 대한 그릇된 편견들

1) “이슬람 편견 많다”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편견에 치우쳤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회교권에서 나온 지적이 아니라 미국의 우수한 연구기관이 2001년 9·11테러를 계기로 서방사회와 회교권의 교집합을 찾아 볼 요량으로 연구를 벌인 결과 얻은 결론이다.

세계경제에서 북한문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국제현안에 대한 권위 있는 연구로 정평이 난 워싱턴의 국제경제연구소(IEE)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슬람 문화가 해당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인식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슬람 문화권이 자본주의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정면 반박인 셈이다. 이같은 연구결과를 내놓은 주인공은 한국문제 전문가로도 널리 알려진 마커스 놀랜드 IEE 선임연구원. 놀랜드 연구원은 이슬람권에 속하는 다종교 국가 말레이시아, 가나, 인도 등을 대상으로 최근 수십년간의 경제발전 양상을 연구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학계에서는 기독교를 자본주의의 기원으로 설파한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회교문화는 시장경제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 이래 이슬람권의 상대적인 경제적 낙후성을 종교문제로 접근해왔다.

놀랜드 연구원은 ‘종교·문화·경제발전’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그동안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이슬람 문화가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을 저해한다고 믿을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교육수준, 투자환경, 경제구조 등의 측면에서 이슬람권이 다른 문화권에 비해 낙후돼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회교 국가들의 경제기반인 원유생산이라는 요인을 배척해 조사하거나 중동국가들만 따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놀랜드 연구원은 “이슬람권의 경제문제는 종교의 시각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훨씬 정확한 분석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파이낸셜뉴스(2003. 12. 8)

2) [아시아-유럽 프레스 포럼] 언론부터 '이슬람 편견' 버려야

▶ “이라크 공격 무조건 반대는 곤란 美도 사우디 등과 관계 고려해야”

아시아-유럽 프레스 포럼 자유토론에서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 등을 놓고 토의가 이뤄졌다.

일부 아시아 언론인들은 '테러와의 전쟁'을 포함, 오늘날의 불안정한 국제정세는 이슬람에 대한 서방측의 편견에서 비롯됐다고 다른 문화·인종·종교를 이해하고 포용하는데 언론이 열린 자세로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제프=미국이 우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를 공격하려 하는지 견해를 들어보고 싶다.

그레고리 세리던(호주 더 오스트레일리안 외신부국장)=프랑스와 러시아·중국 등이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반대하지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사담 후세인은 걸프전 이후 국제사회에 천명했던 유엔 무기사찰 수용 등의 약속들을 이행하지 않아 지금과 같은 위기를 자초했다.

로즈메리 라이트(영국 더 타임스 논설실장)=미국의 일방주의를 거론할 때마다 사람들은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를 예로 들지만 이는 적절한 사례가 아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임기말 교토의정서에 서명했다. 내가 보기에 '럼즈펠드 독트린'도 상식선에서 이뤄지고 있다. 오히려 국제사회가 과잉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리프 니자미(파키스탄 더 네이션 편집인)=파키스탄은 9.11 테러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다. 무샤라프 정권은 9.11을 계기로 미국과 유래 없는 동맹관계가 됐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무샤라프는 테러전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는 계기로 삼았다. 하지만 미국이 사담 후세인 정권을 타도하려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슬람 국가들과의 관계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도미야마 야스시(일본 지지통신 외신국장)=9.11 테러 이후 미국은 국토안보국을 설치하는 등 국내 안보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통 우방인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사이가 벌어지고 중국·러시아가 미국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다면 전통 우방들은 미국을 지원해야 된다.

* 인터넷 중앙일보(2002. 9. 9)

미하일 코조킨(러시아 이즈베스티야 편집국장)=오늘날 테러리즘의 특징은 그 주체가 국가가 아닌 얼굴 없는 형태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의 정권을 교체할 수는 있겠지만 이로 인한 국제사회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살폭탄 테러범들의 심리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테러를 단순히 안보문제로만 처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막시모 솔리벤(필리핀 스타 편집인)=테러는 3백50년 전 이미 필리핀에 존재했다. 이슬람교도들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했다. 하지만 상황은 언제나 변한다. 나 자신도 제2차 세계대전 때 중국·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친구는 적이 되고, 적은 친구가 됐다.

장량(중국 인민일보 국제담당 부국장)=국제사회는 평화와 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평화 없는 발전 없고 발전 없는 평화도 없다. 개발도상국들이 발전하려면 선진국들이 지원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또 이들 지역의 분쟁을 근절하는 데 발벗고 나서야 한다.

로즈메리 라이터=한국에서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과 관련이 있다.

김○○(○○일보 국제문제 대기자)=한국의 반미감정은 두 얼굴을 갖고 있다. 미국의 안보우산 아래 햇볕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반면, 부시 행정부의 강경정책이 오히려 햇볕정책을 방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북한이 이라크·이란과 함께 '악의 축'에 포함된 사실은 한국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경우 한반도가 전장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한국에서 이슬람에 대한 편견으로 힘들어하는 외국인노동자들

①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돈 벌러 왔을 뿐.

[한겨레] 법무부 “불법체류 과장돼”

‘이슬람 반한활동 보도’ 이주노동자 항변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온 것뿐인데, 한국은 우리를 단속하고 이제는 우리를 테러리스트로 몰아가고 있다. 테러리스트로 볼까봐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 한국 사람도 돈 벌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다.” 한국에 온지 10년째인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샤킬(38)의 항변이다. 그는 7년 전 일하다 허리를 다쳐 지금은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 어

머니 영결식 때도 고국에 가지 못했다. 잘못 나갔다가는 다시는 한국에 들어 올 수도 없다. 지난해 8월17일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뒤부터 그는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기 때문이다.

최근 이들 이주노동자들에게 ‘불법체류자’외에도 ‘반한활동’이라는 딱지가 덧붙여졌다.

경기도 안양의 한 이슬람사원에서 기도를 하다 방송을 본 마부(43·방글라데시)는 깜짝 놀랐다. 자신처럼 이슬람을 믿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92년 만든 사원인 ‘다와툴 이슬람코리아’가 반한활동 단체로 보도됐기 때문이다. 다와툴 이슬람코리아 사무국장인 마부는 “뉴스를 보고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그는 “다와툴 이슬람코리아는 이슬람종교에 초대한다는 뜻으로 반한활동이나 테러리스트가 아니다”며 “우리가 돈을 모은 것은 이슬람 사원을 짓기 위한 것일 뿐 다른 목적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단순히 불법체류자인데 언론에서는 ‘반한단체’인 것처럼 부풀려졌다”며 “다와툴 이슬람코리아는 불법체류로 단속한 것이지 테러리스트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들이 반한활동가로 둔감되는 이유는 정부가 마련한 ‘불법체류자 반한활동 종합대책’에서 반한활동 개념에 ‘정치적 주장을 하며 정부시책을 비판·오도하고 이를 선전·주동하는 자’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반한활동’이란 이름으로 강제 추방된 이주노동자들은 14명으로, 이들은 집회·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반한활동 관련자로 분류됐다.

② “우리를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몰았다”

[한겨레21 2004-10-26]



▲ [한겨레] 인터뷰/다와툴이슬람코리아 에마라트 후세인 사무국장

‘에마라트 후세인(43·가족 이름 바부)씨는 안양의 한 공장에서 금형노동자로 일한다. 사원에 오는 친구들 가운데 연장자에 속하는데 한국말을 잘해 실무 일을 맡게 됐다고 한다. 그는 “한국의 국회의원과 언론에 정말 실망했다”고 말했다. - 강제 추방당한 ㄴ씨 등은 어떤 사람인가? = ㄴ은 나이는 어리지만 신앙이 깊고 말을 잘해 우리가 ‘목사’로 추대한 사람이다(성직자가 따로 없는 이슬람에서는 예배 인도자를 ‘이맘’이라고 하는데 그는 편의상 목사라 불렀다). 각자 1만원씩 모아서 매달 85만원씩 월급을 줬다. 다른 두 사람은 공장에 다니면서 주말에만 사원에 나오곤 했다. ㄴ이 고향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내가 그를 알고 지내던 3년 동안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고, 그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본 일이 없다. 당장 자기 생계가 어려워 주변 도움을 받아야 했던 사람인데.... ㄴ이 만약 정말로 반한활동을 이끌고 테러리스트와 연관돼 있다면 왜 추방했겠나. 한국에 잡히면 1억 원 송금설은 왜 나왔을까? = 송금을 했다면 제발 증거를 보여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돈을 모은 건 맞다. 사원을 새로 짓기 위해 전국에 있는 이슬람 친구들이 한국식 표현으로 밥 안 먹고 옷 안 입고 2년 동안 모았다. 우리에게 사원은 집만큼이나 소중하다. 기도도 하지만 당장의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수첩을 펼쳐 보이며) 3주 전 사원 전체 회의 때 확인하기로는 1억2168만7천원이 현금으로 모였다. 그 돈은 지금 그대로 외환은행에 저금돼 있다. 파키스탄인, 인도네시아인들이 모두 같이 모은 돈인데 그걸 어떻게 방글라데시 정당에 보낼 수 있겠나. - 사원에 오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 가까이는 수원이나 안산, 멀게는 의정부나 경기 화성, 인천에서도 온다. 합법 체류자도 있지만 불법 체류자도 있다. 고용허가와 관련된 정보를 모르거나 당장의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 체류자가 된 이들이 많다 - 언론 보도 뒤 분위기가 어떤가.

= “‘반한활동’이 뭐냐”는 질문이 가장 많았다. 한국말도 서툴고 뜻도 낮설어서 못 알아듣는 거다. 언론 보도를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다. 한국은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이라는 높은 사람이 아무 증거 없이 우리를 반한집단으로 몰고 갈 수 있는지, 또 언론은 사실 확인 없이 기사를 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많은 한국 친구들이 우리를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보게 되지 않겠나. 그 동안에도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단속을 이유로 톡하면 사원을 드나들었는데,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다. 지금 라마단(금식월) 기간인데 다들 이제 기도하기도 어려운 게 아니냐고 걱정한다. 비자 없는 친구들은 이제 사원에 오는 것도 힘들게 됐다.

* 한겨레(<http://www.hani.co.kr>)

9. 살색???

개 요

□ 활동목표

- 한국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살색이란 명기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지구촌시대, 다인종사회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자민족중심적인 용어인 살색을 사용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따라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며 나와 다른 살색을 가진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본 활동의 목표이다.
- 살색캠프를 통해 인종적 다양성을 인정한다.

□ 활동요약

- 나의 살색은?

□ 진행개요

- 지 도 자 : 전체 진행자 1명(전체진행)
- 참가인원 : 50명 내외(5개 대륙으로 나누어 모듬을 구성)
- 장 소 : 잔디밭
- 소요시간 : 놀이 1시간
- 준 비 물 : 페이스페인팅 혹은 색종이

□ 유의사항

- 청소년들의 활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문화적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의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가져와 입도록 한다.
- 청소년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느낌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열린 분위기를 조성한다.
-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한다.

활동내용

활동 1 : 나의 살색은?

▶ 주요내용 : 참가 청소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을 골라 그 편으로 간다. 그에 따라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으로 나눈다. 그러면서 자기 살색을 선택하여 자기 동일시를 한다. 그런 후 문화적 표현을 집단별로 한다.

▶ 소요시간 : 30분

▶ 준비물 : 페이스 페인팅 혹은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색종이

▶ 진행과정

- 지도자는 참가청소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륙에 가서 그쪽 사람이 되라고 안내한다.
- 5대륙인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청소년들로 나눈다.
- 그 안에서 국가별로 각자가 국민이 되어 자기 살색을 선택한다.
- 예시 : 아프리카에서도 남아공의 백인은 자신의 피부색을 희게 표시하고 아메리카에서도 이주한 흑인은 자신을 검게 표현한다.
- 10분 정도 자기 살색을 정한 후 자기 문화를 표현한다.
- 모둠별로 퍼레이드를 벌인다.

☞ 유의사항

- 살색은 피부색의 차이만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반영한다. 청소년들이 상상속의 문화적 차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형 놀이이다.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도움자료

□ 자료 1. 참고문헌

○ 그의 살색은 연한 밀크 초콜릿색이었다(조병준, 인권 2004. 4).

어느 일요일 구로역 플랫폼에서
그는 상록수로 가던 내게 고잔으로 가는 길을 물었다.

구로에서 금정을 거쳐 상록수까지 가는 동안
그는 몇 가지를 말했고, 몇 가지를 말하지 않았다.
싱가포르 출신의 음악치료사가 왜 김포에 살고 있는지,
고잔역에 내려 어디로 가는지,
그가 말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궁금해 할 필요는 없었다.
나는 그저 내 살색이 보호색이 될 수 없었던 나라들에서
내게 잠시 친절했던 현지인들의 얼굴을 기억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그에게서 커피를 얻어마셨고
어느 토요일 저녁 그에게 저녁을 대접했다
그는 바흐와 모차르트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아했다.
그는 영어에는 내가 아는 싱글리시 액센트가 없었다.
그의 살색은 연한 밀크 초콜릿색이었다.
진실을 캐묻는 건 때로 불친절한 일이다.
나는 잠시 친절했던 현지인으로 남기로 했다.

오랜 친구가 아니라면 실례가 될 이른 시간에 전화가 왔다.
단속이 끝날 때까지 파키스탄 친구 몇 명을
잠시 내 집에 머물게 해줄 수 있겠느냐고 그가 물었을 때
나는 잠시 고민했고, 정중히 거절했다.
그가 진실을 말해 주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나는 신호 끊어진 수화기에 대고 중얼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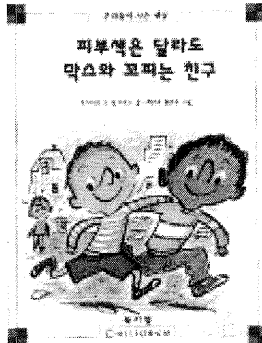
어쩌다 상록수로 가는 날
연한 밀크 초콜릿색 살색의 수많은 그를 다시 만난다.
그는 내게 고잔으로 가는 길을 묻지 않는다.
나는 상록수에 내린다.

나는 잠시 친절했고, 영원히 불친절해진
살구색 살색의 현지인이었다.
확인된 진실은 그것뿐이다.

□ 자료 2. 피부색에 대한 도서

▶ 피부색은 달라도 막스와 꼬피는 친구

도미니끄 드 생마르스, 세르쥬 블로슈 | 문은실 옮김



1992년부터 모두 71종이 출간되어 약 400만권이 팔린 책!
2차 시리즈는 이성에 대한 호감, 친구와의 다툼, 외모에 대한 불만 등 아이들이 흔히 겪고 고민하는 일들을 재미있는 그림과 함께 어린이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렸습니다. 특히 <피부색은 달라도 막스와 꼬피는 친구>는 피부색은 다르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모두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얼굴색이 다르다고 무시하는 일은 있어서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달라도 같이 모여서 사는 이 지구가 아름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음 세상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직한 모습을 지켜보세요. 1차분(교내폭력, 시험공포, 경쟁, TV 중독, 성교육)에 이어 2차분 여섯

권에는 '이성에 대한 호감', '친구와의 다툼', '외모에 대한 불만', '편견', '물건을 훔침', '왕따'라는 우리 아이들의 세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고민거리를 재미있고 귀여운 캐릭터 막스와 릴리 남매에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담았습니다.

책의 말미에는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 실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개성 넘치는 캐릭터와 좌충우돌 펼쳐지는 이야기가 주는 재미가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려줄 것이고, 부모님들에게는 아이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겪고 있을 심리적인 문제들에 대해 자상하게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매우 유용한 책입니다.

<막스와 릴리>시리즈는 1992년부터 모두 71종이 출간(계속 출간 중)되어 통산 약 400만권이 팔렸으며, 지금은 매년 50만권씩 판매되고 있습니다.

불어권의 유럽 8개국에 수출되어 각국의 어린이들에게는 물론 아동학이나 심리학과 학생들의 예비교재로, 학교나 가정에서 토론을 돕는 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 만화시리즈는 프랑스의 권위 있는 아동문학상인 '생텍쥐페리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 자료 3. 피부색에 따른 불평등은 역사적 산물일 뿐이다.

▶ “불평등과 억압은 그리 오래지 않은 역사의 산물”

크리스 하먼, 저서 '민중의 세계사'에서 갈파

(서울=연합뉴스) 탐욕과 불평등, 인종차별, 국수주의적 편견, 야만적인 관습, 끔찍한 전쟁 등 인류탄생 이래 세상은 언제나 이 모양이었고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수많은 작가와 철학자, 정치인, 사회학자, 심리학자가 위계질서와 굴종, 잔혹성을 인간의 자연스런 속성으로 그린다. 현재 인기를 누리는 대중적 과학책들도 이런 관점을 퍼뜨리는 데 한몫하고 있다.

데스먼드 모리스는 인간을 '털없는 원숭이'라고 규정하고, 로버트 아드리는 '살인 충동'의 노예로,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 따라 움직이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1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인류종의 기원에서 바라볼 때 경쟁과 불평등, 억압은 정확히 말해 그리 오래지 않은 역사의 산물

일 뿐이다. 고고학적 발견과 인류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불과 5천 년 전만 해도 인류는 서로 나눠 갖고 도왔으며, 지배자와 피지배자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었다.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인종 차별 의식만 해도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를 갖춘 이데올로기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이를 테면 고대나 중세시대 사람들은 피부색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고대 이집트 무덤의 그림들에는 옅은 색, 갈색, 검은색 피부를 가진 인물들이 무작위로 섞여 있다. 로마 역사에서 적어도 한 명의 황제를 포함해 많은 중요 인물이 북아프리카 출신이었으며, 그 어떤 문헌도 이들의 피부가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언급하고 있지 않다. 16세기 초에 그려진 네덜란드의 그림들도 흑인과 백인이 자유롭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인종 차별은 노예 상인과 소유자들이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300여년에 걸쳐 발전시킨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며 ‘사회주의 노동자’ 편집자인 크리스 하먼의 ‘민중의 세계사’(천경록 옮김, 책갈피 펴냄)는 이처럼 인류의 역사를 지배자들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고 그 지배질서 아래서 착취, 학살당하고 신음하는 민중의 눈으로 훑으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려 했던 수많은 ‘역사의 아웃사이드’들의 발자취를 더듬는다.

저자는 이미 국내 번역, 소개된 ‘세계를 뒤흔든 1968’,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 ‘민족문제의 재등장’, ‘쉽게 읽는 마르크스주의’, ‘동유럽에서의 계급투쟁’, ‘오늘의 세계 경제:위기와 전망’, ‘마르크스주의와 공황론’ 등의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진보적 사회운동가다.

저자는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인류사를 요약한 방법 그대로 인류가 처음 탄생했을 때부터 21세기가 시작하기 바로 전인 1999년까지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설명한다.

참고문헌

- 강수돌(2001). 노동의 희망. 서울: 이후.
- 강수돌·석현호·이정환·이혜경·정기선(2003).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서울: 지식마당.
- 강순원(2000). 평화·인권·교육.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관석(1978). 누구의 인권인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김성재 외(2002). 인권시대를 향하여. 서울: 나남출판사.
- 김영임(2002). 이주노동자 가족의 자녀 양육 실태와 지원 방안. 성공회 대학교 시민 사회복지 대학원.
- 김해성(2002).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현황과 선교과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 노동인권회관(1993). 노동인권보고서. 서울: 역사비평사.
- 민주노총(2004). 다양한 사례로 보는 노동조합. 교육, 조직, 투쟁활동민주노총 총서 0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박천웅, 국경없는 마을과 다문화 공동체.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
- 박홍규(2004). 아나키즘 이야기. 서울: 이학사.
- 설동훈(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 양명수(1999). 녹색윤리: 인권과 자연권. 서울: 서광사.
- 외국인 노동자대책협의회 편(2002).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서울: 다산글방.
- 유네스코(2000). 모든 인간은... 서울: 사람생각.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01). 과학기술과 인권. 서울: 당대.
- 윤소영(1995). 마르크스주의의 전화와 인권의 정치 : 알튀세르를 위하여. 서울: 문학 과학사.

- 이란주(2003). 말해요, 찬드라. 서울: 삶이 보이는 창.
- 이병천(2001). 20세기 한국의 야만 : 평화와 인권의 21세기를 위하여. 서울: 일빛.
- 이용교(1997). 인권교육의 기법. 서울: 인간과복지.
- 최문기 외(2003). 인권과 법. 서울: 세종출판사.
- 최성철(1996). 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 한양대학교 통일정책연구소.
- 편집부(2004). 하나님 나라와 이주노동자 선교. 기독교산업사회 연구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1976). 인간 존엄: 인간의 인권은 침해할 수 없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한국인권재단(2000). 21세기의 인권 1,2. 서울: 한길사.
- 한상진(1998). 현대사회와 인권. 서울: 나남출판.
- Lernoux, Penny. 민중의 외침: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인권 투쟁: 미국정책과 마찰하는 가톨릭 교회(이부영 옮김, 1984). 서울: 분도출판사.
- Redemptorist, C.(2002). Multicultural Ministry, Second International Network Forumon』 (INFORM).
- Sellers, Kirsten. 인권, 그 위선의 역사(오승훈 옮김, 2003). 서울: 은행나무.
- 스기하라 야스오(1995). 인권의 역사. 서울: 한울.
- 스티븐 슈트-민주주의법학연구회 옮김(2000). 현대사상과 인권. 서울: 사람생각.
- 짐 아이프-김형식, 여지영 옮김(2001). 인권과 사회복지 실천. 서울: 인간과 복지.
- 피터 스토크-김보영 옮김(2004). 국제이주. 서울: 이소출판사.
-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http://user.chollian.net/~smf97/kmwcmain.htm>
- 경남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http://kmc.jinbo.net>
-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 다산인권센터 <http://www.rights.or.kr>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http://withpeople.or.kr>
 대전외국인 이주 노동자 종합지원 센터 <http://www.migrant119.wo.to>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ijunodong.prok.org
 사랑의 전화정보 센터 <http://www.thelink.co.kr>
 선한 이웃 클리닉 <http://www.mclinic.net>
 아산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 asm.nodong.net
 아시아의 친구들 <http://www.foa2002.or.kr>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www.migrant.or.kr
 안양 이주 노동자의 집 <http://www.amwc.org>
 언론인권센터 <http://www.presswatch.or.kr>
 외국인노동자 대책시민연대 www.njustice.org
 외국인노동자 대책 협의회 www.jcmk.org
 외국인노동자 실태 및 법제화 당위성 소개
www.jungto.org/gf/kor/daehwa4/0323.htm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www.mumk.org
 외국인노동자의 집 <http://www.g4w.net>
 외국인노동자의 집, 중국동포의 집 www.migrantworkers.org
 유엔인권고등판무관 http://www.unhchr.ch/hchr_un.htm
 인권실천시민연대 <http://www.hrights.or.kr>
 인권운동사랑방 <http://www.sarangbang.or.kr>
 인권운동 사랑방 노동자 소식- http://www.sarangbang.or.kr/kr/info/hrinput/hr_content.html?seqnum=14183&page=1&sepcode=d101&order=1
 &type=subject
 작은손길 <http://www.littlehands.or.kr>
 청소년인권센터 <http://www.yrights.or.kr>
 코시안의 집 <http://kosian.urm.or.kr>
 평택외국인노동자 센터 ijunodong.prok.orgijunodong.prok.org

피난처 <http://pnan.org/>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http://www.migrant114.org>

한국인권재단 <http://www.humanrights.or.kr/>

SUNFLOWER <http://www-sunflower.org>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http://cham.jinbo.net/maybbs/view.php?db=sarangbang&code=data&n=230&page=14>

아시아 각국의 외국인 노동자정책과 노동권

<http://jpic.org/wwwb/data/foreignworker/17.hwp>

외국인 노동자

<http://www.duokorea.com/duokorea/info/info99/info99-615.htm>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대책

http://www.kdi.re.kr/kdi/report/report_read05.jsp?pub_no=1581

이주노동자 합법화 이후 장기체류자들 - 숨거나 혹은 농성하거나

http://km.naver.com/list/view_detail.php?dir_id=90101&docid=777244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프로그램 개발 ◆

박영균 한국청소년개발원 · 연구위원

강순원 한신대학교 · 교수

김영지 한국청소년개발원 · 부연구위원

◆ 연구협력진 ◆

박성희 한국청소년개발원 · 위촉연구원

강윤주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청소년학 전공

전지현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

- 2004-08 청소년대상 차별개선 교육프로그램 개발
- 2004-08-01 장애인 차별 개선 프로그램
- 2004-08-02 성차별 개선 프로그램
- 2004-08-03 연령차별 개선 프로그램
- 2004-08-04 외국인 차별 개선 프로그램